

---

碩士學位請求論文

한글 맞춤법의 使用實態와  
指導方法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夫 庸 均

1997年 8月

# 한글 맞춤법의 使用實態와 指導方法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琨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夫 庸 均



夫庸均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 委員長

審査 委員

審査 委員

金 光 雄  
崔 圭 一  
金 泰 琨



〈抄錄〉

## 한글 맞춤법의 使用實態와 指導方法 研究

夫 庸 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泰 珉

우리는 국어로서 사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 전달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 한다.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며, 민족을 단결시키는 힘과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값진 보배다.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국어 어휘 8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국어 어휘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어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에 관한 문법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므로, 우리의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국민된 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I. 序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方法	2
II. 한글 맞춤법의 제정과 원리	4
1. 한글 맞춤법의 제정	4
2. 표준어 규정	5
3. 표기와 발음의 원리	6
III.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와 분석	7
1. 形態에 관한 것	7
2. 소리에 관한 것	21
3. 그 밖의 것	26
4. 한글 맞춤법 바른 표기의 실태 일람표	47
IV. 올바른 맞춤법 사용을 위한 지도 방법	49
1. 국어와 언어	49
2. 음운 변동과 어휘	50
3. 형태에 관한 것	59
4. 그 밖의 단어	60
V. 結 論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7
附錄 1	68
附錄 2	73

# I. 序論

## 1. 研究 目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國語는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모하고 있다. 國語가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500년 전의 국어와 지금의 국어를 비교해 보면 그 변하는 정도나 방향이 개인에 따라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를 규정하여 언중들은 그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1933년 한글 맞춤법 統一案이 發表된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改定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개정됨에 따라 언중들이 개정된 맞춤법에 쉽게 同化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개정된 맞춤법에 대한 關心과 意慾이 不足함도 있지만, 맞춤법 규정 자체가 보통 學歷 水準으로 이해하기 어려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의 理解 不足과 習得을 못하는 데서 많은 오기를 빚어내고 있다.

언중들이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을 얼마나 正確하고 바르게 使用하고 있는가, 또한 틀리게 사용하는 單語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어휘들을 조사하여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고자 한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단어로 표현할 때 英語와 국어를 比較하면서 영어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도 또한 쉬운 듯하면서 實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려면 어려움에 逢着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국어인 한글 맞춤법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크게 音韻面과 語彙面, 形態素 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음운면과 어휘면, 형태소에 해당하는 맞춤법 가운데 混同을 가져오기 쉬운 어휘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자는 언중들이 사용하는 맞춤법과 표준어에 오기를 가져올 수 있는 어휘를 形

態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 그 밖의 것 등을 選定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게 우리의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데에 이 연구의 目的이 있다.

## 2. 研究 方法

이 論文의 연구 방법은 언중들이 平素 사용하는 국어 표기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많이 어긋나는 것을 對象으로 하여 그 중 형태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 그 밖의 것 등 많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의 어휘들을 모으고 모아서 가나다 順으로 分類한 후 이 중 많은 오용을 가져오는 80문항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논저를 조사한 결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논저이며, 다른 하나는 학위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한 논저 등으로 가를 수 있다.

前者의 境遇,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 중 이 연구 논문에 도움을 받은 것은 이기문(1993) “國語 誤用 事例集” 외 많은 文獻을 參考하였으며, 後者の 境遇의 논문은 그리 흔치 않음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논문에 참고가 된 선행 연구한 학위 논문은 최경하(1991) “중학생의 맞춤법 表記 實態 分析을 통한 指導 方法 研究”(석사학위 논문) 등 여러 編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발표한 문헌집이나 학위 논문들은 1989년 3월 1일 한글 맞춤법 시행 전에 발표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후의 한글 맞춤법과 많이 다르므로 문헌 참고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 왔다. 그래서 연구자가 발표하는 논문은 개정된 후의 규정에 의해 언중들이 誤謬를 가져오는 틀리기 쉬운 한글을 찾아 내어서 보다 바르게 쓸 수 있게 한다는 點에서 참으로 意義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 논문은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어휘 80문항을 說問을 通하여 調査하였다. 이 80문항에 관한 설문 대상자는 제주도 일반계 高等學校 2學年 학생 350명(편의상 ‘가’집단이라 명명), 대학교 1학년 學生 100명(편의상 ‘나’집단이라 명명), 大學校 以上 學歷을 가진 公務員 42명(便宜上 ‘다’집단이라 命名), 총 492명에게 1996년 4월 12일부터 1996년 6월 12일까지 설문 조사하고 이 중에서 ‘가’집단을 標本對象으로 選定하여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지도 방안

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統計 處理는 100分率에 의한 方法을 擇하였다. '나'집단과 '다'집단도 같은 方法을 사용하였으며, 흔히 틀리기 쉬운 部分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을 통해 比較 檢討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 논문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原則으로 하여 應答者들이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把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맞춤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류를 가져오는 部分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리고 음운의 여러 현상 등을 再認識하게 함으로써 바른 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II. 한글 맞춤법의 制定과 原理

### 1. 한글 맞춤법의 制定

우리는 어떤 어려운 단어를 정확하게 쓰려고 할 때, 이것이 옳은 표기인지 아닌지 망설일 때가 가끔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맞춤법이라는 틀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나는 대로 써 보고 난 뒤 옳고 그름을 파악한 후 그것을 익혀 사용한다면 보다 바른 표기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訓民正音 창제 이전까지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借字 표기에 의지하여 문자 생활을 하였다. 15 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우리는 비로소 음운 문자에 의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적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특수한 '맞춤법' 문제가 발생한다. 맞춤법 문제는 주로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받침 표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어적기이고 다른 하나는 끊어적기이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이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이어적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이어적기의 방법은 개화기 무렵까지 약 450 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뜻만 통하면 되었을 뿐, 표기의 옳고 그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과거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맞춤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학교 교육 때문이었다. 1907년에는 국가에서 學府 안에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 연구소에서 국어 정서법을 체계화하는 일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1909년 이 연구소에서는 '國文研究議定案'을 만들었지만, 이 의정안은 공포 시행되지 못하였다. 최초로 공포된 맞춤법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12년에 발표된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이었다. 이 철자법은 국문 연구 의정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소리나는 대로 쓰는 表音主義를 택하였기 때문에 받침에 'ㄱ, ㅌ, ㅍ' 등이 쓰이지 않았다.<sup>1)</sup>



오늘날, 우리의 맞춤법은 조선어 학회에서 1933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일안은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더 한층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1933년에 발표된 것 중에서 국어가 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고친 것일 뿐, 그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현행 맞춤법의 원리는 총칙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그것이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되'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해당되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표의주의 표기법에 해당된다. 우리 한글은 음운 문자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맞춤법으로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2. 標準語 規定

우리 나라에서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이다. 1912년 발표된 '보통 학교용 철자법'에 "경성어를 표준어로함,"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우리말의 표준어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최초의 규정이다. 표준어를 우리의 힘으로 제정하자는 목적으로 학자들이 결성한 다체가 '朝鮮語學會'였다. 이 단체의 목적은 우리 겨레의 얼을 빛내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며, 이를 통하여 문화적 독립과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선어 학회는 이를 위해서 辭典을 편찬하기로 하였는데,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맞춤법과 표준어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1933년에 완성, 발표된 표준말 규정의 강령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는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1년간의 홍보, 준비 단계를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이 표준어 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1970년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설치한 후, 표준말 사용 실태 조사, 된소리 및 긴소리 연구, 지방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 통용어 찾기, 문헌에 의한 표준말 자료집 만들기 등을 거쳐 1977년 표준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를 기

---

1)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 189.

초로 하여 여러 단체의 심의를 거쳐 1988년 완성된 것이 현재의 표준어 규정이다.<sup>2)</sup>

현재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준어 사정의 기준은 시대, 지역, 계층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3. 表記와 發音의 原理

현행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말은 음운 환경에 따라 발음하기 쉽게 변하는 습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꽃이 [꼬치]    꽃을 [꼬출]    꽃에 [꼬체]    꽃나무 [꼰나무]    꽃밭 [꼰뻬]  
꽃놀이 [꼰노리]    꽃망울 [꼰망울]    꽃과 [꼰과]    꽃다발 [꼰따발]

그런데 이들을 소리나는 대로 적기로 하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저하된다.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글 맞춤법이 오용되기 쉬운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법 즉, 언어 조직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교육적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 언어에는 여러 가지 음운 법칙이 있다. 즉 음의 동화, 음의 이화, 두음 법칙, 음의 탈락, 음의 축약, 음의 첨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모두 어떠한 원칙이나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음운 법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발음이나 표기를 정확히 할 수 있다.

---

2)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 182.

### Ⅲ. 한글 맞춤법 使用實態와 分析

#### 1. 形態에 관한 것

##### 1) ‘ㄹ’음 탈락

1. 가으내, 21. 다달이 <sup>3)</sup>

한글 맞춤법 규정 제28항에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

(예) 따님(딸-님)    마소(말-소)    바느질(바늘-질)    여단이(열-단이)

우짚다(울-짚다)

등이다. 이것은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의 경우는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ㄹ’은 대체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였다.<sup>4)</sup>

위 규정에 따라서 ‘가을-내’를 ‘가으내’로 ‘달-달-이’를 ‘다달이’로 적는다.

##### 1. ‘가으내’의 실태 분석은,<sup>5)</sup>

‘가’집단 : 가으내(50%)    가우내(16%)    가으네(8%)    가을내(26%)

‘나’집단 : 가으내(39%)    가우내(13%)    가으네(10%)    가을내(38%)

‘다’집단 : 가으내(43%)    가우내(7%)    가으네(10%)    가을내(40%) 로

나타나고,

3) □ 안의 번호는 설문 문항 번호임.

4) 교육부(1993), 국어 어문 규정집, p.76.

5) 밑줄 친 앞 부분이 바른 표기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자의 백분율임. 각 문항 모두 이와 같음.

21. '다달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다달이</u> (90%)	달다리(0%)	달달리(0%)	달달이(10%)
'나'집단	: <u>다달이</u> (79%)	달다리(4%)	달달리(1%)	달달이(16%)
'다'집단	: <u>다달이</u> (81%)	달다리(0%)	달달리(0%)	달달이(19%)

나타난다.

위에서 '가으내'의 경우 상당수가 'ㄹ'을 생략하지 않은 채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ㄹ'이 탈락됨으로써 발음이 편리하다는 음성학적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 2) 'ㄴ'불규칙 활용

2.가까워, 54.아름다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8항에

'ㄴ'불규칙 용언'의 경우, 모음이 'ㅏ'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에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는다.

모음 'ㅏ'인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 '와'로 적음

(예) 돕다(助) : 도와 도와서 도왔다.

곱다(麗) : 곱와 곱와서 곱왔다.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는다.

(예) 깎다 :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밋다 :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 쉬워 쉬우니 쉬웠다.

특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모음 ‘ㄱ’인 어간 뒤” 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예) ‘돕다’에서 ‘돕’의 ‘ㄱ’를 말한다.

‘곱’의 ‘ㄱ’만을 말한다.

그 외에는 모두 ‘거’가 되는 것이다.

모음 조화의 규칙성에 따라 ‘ㄱ, ㄱ’에 붙은 ‘ㅂ’ 받침 뒤에 어미 ‘-아(-았)’가 결합한 형태는 모두 ‘와(왔)’로 적었으나, 이번에는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여, 모음이 ‘ㄱ’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을 이해한다면, ‘가깝다’는 ‘가까워’가 되며, ‘아름답다’는 ‘아름다워’가 되고 ‘곱다’는 ‘고와’가 됨을 알 수 있다. 받침 ‘ㅂ’의 변천 과정은 ‘ㅂ순경음’을 거쳐 앞의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우’로 변하여 ‘워’로 되는 것이다. 다만, ‘돕다’와 ‘곱다’의 경우에는 모음 ‘ㄱ’가 어간 뒤 ‘아’와 결합해서 ‘와’로 적어야 하므로 ‘고와, 도와’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돕-, 곱- 등 단음절 어간 뒤에서만 모음 조화 법칙이 적용되고, 다음절 어간 뒤에서는 모음 조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으로, 모음 조화 붕괴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어의 음성모음화 경향으로 바뀌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가까워’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가까워(88%)      가까와(12%)  
‘나’ 집단 : 가까워(82%)      가까와(18%)  
‘다’ 집단 : 가까워(60%)      가까와(40%) 로 나타나고,

54. ‘아름다워’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아름다워(92%)      아름다와(8%)  
‘나’ 집단 : 아름다워(91%)      아름다와(9%)  
‘다’ 집단 : 아름다워(83%)      아름다와(17%) 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17~40%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4. 갑자기

한글 맞춤법 규정 제20항에

명사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뽕뽕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 2. 명사로 된 것

바둑이 애꾸눈이 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지 바가지 이파리 지푸라기

그러나, 한글 맞춤법 규정 제25항 [붙임]에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갑자기'는 '갑작하다'가 되지 않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4. '갑자기'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갑자기(90%) 갑작이(2%) 갑짜기(8%)

'나'집단 : 갑자기(82%) 갑작이(14%) 갑짜기(4%)

'다'집단 : 갑자기(93%) 갑작이(5%) 갑짜기(2%) 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부분이 올바르게 표기하였으나, '나'집단에서 14%의 응답자가 '갑작이'로 답한 것을 보면 위의 제25항[붙임]의 취지를 숙지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 4) 사잇소리 현상 6) (한글)

6) 사잇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合成名詞)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 한다.

16. 나뭇잎, 39. 뱃사공, 40. 배갯잇

한글 맞춤법 규정 제30항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뭇배, 나뭇가지, 시냇가, 바닷가, 햇볕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나는 것

아랫니, 잇몸, 시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소리가 덧나는 것

뒷일, 배갯잇, 나뭇잎, 깻잎, 댓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병, 뱃병,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콧병, 땃줄, 텃세, 찢기, 횡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제삿날, 훗날, 양치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소리가 덧나는 것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이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면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 현상에는 뚜렷한 규칙성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래+기름 → 고래기름    기와+집 → 기와집    은+돈 → 은돈

콩+밥 → 콩밥    말+방울 → 말방울

그러나,

나무+잎 → 나뭇잎[나뭇잎] 으로

배+사공 → 뱃사공[뱃사공] 으로

배개+잇 → 배갯잇[배갯잇] 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표기해야 한다.<sup>7)</sup>

16. '나뭇잎'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나뭇잎(94%) 나무잎(6%) 나뭇뿔(0%)

'나'집단 : 나뭇잎(92%) 나무잎(7%) 나뭇뿔(1%)

'다'집단 : 나뭇잎(46%) 나무잎(26%) 나뭇뿔(8%) 으로 나타나고,

39. '뱃사공'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뱃사공(100%) 배사공(0%) 배사공(0%)

'나'집단 : 뱃사공(100%) 배사공(0%) 배사공(0%)

'다'집단 : 뱃사공(96%) 배사공(2%) 배사공(2%) 으로 나타나고,

40. '배갯잇'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배갯잇(58%) 배개잇(12%) 뱃갯잇(6%) 뱃개잇(24%)

'나'집단 : 배갯잇(46%) 배개잇(20%) 뱃갯잇(12%) 뱃개잇(22%)

'다'집단 : 배갯잇(50%) 배개잇(21%) 뱃갯잇(17%) 뱃개잇(12%) 으

로 나타난다.

특히 많은 오기를 범하고 있는 '나뭇잎'과 '배갯잇'은 50% 이상이며, 특히 '뱃사공'의 '배'와 '배갯잇'의 '배'에서 '개'와 '갯'의 단모음 구분이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말인 국어의 어려움이 하나이며, 오기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어려운 단어는 반복 익힘으로서 바르게 쓸 수 있다. 또 국어에서 단어로 표기할 때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규정도 잘 이해하여 바르게 표기해야겠다.

7) 교육부(1996), 고등 학교 문법, pp.33~34.



5) 준말 표기

29. 만만찮다    69. 적잖은

준말에 대한 맞춤법 규정 제39항에,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29. '만만찮다'의 실태 분석은,

- '가'집단 : 만만찮다(96%)    만만잖다(0%)    만만ㅎ잖다(4%)
- '나'집단 : 만만찮다(86%)    만만잖다(12%)    만만ㅎ잖다(2%)
- '다'집단 : 만만찮다(81%)    만만잖다(17%)    만만ㅎ잖다(2%) 로 나타나고,

69. '적잖은'의 실태 분석,

- '가'집단 : 적잖은(98%)    적잖은(2%)
- '나'집단 : 적잖은(96%)    적잖은(4%)
- '다'집단 : 적잖은(81%)    적잖은(19%) 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지않'의 경우 그것을 줄여 쓸 때에 '-잖-'으로 쓰였다. 그래서인지 '다' 집단에서 17%의 응답자가 '만만잖다'로, 19%의 응답자가 '적잖은'으로 답한 것을 보면 개정된 맞춤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6) 단모음화

13.괴팍하다    62. 으레

표준어 규정 제10항에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 말은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특히 '시, 기, 가, 거' 등의 원순 모음을 평순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벼→베, 사과→사가' 등. 그러나 이 항에서 다룬 단어는 표준어 지역에서도 모음의 단순한 과정을 겪고, 이제 애초의 형태는 들어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한 예로 '미류나무(美柳~)'는 어

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인데, 이제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뀐 것처럼 모음이 단수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의 '괴팍(乖愎)'은 한자음이나 모음이 단순화(현실 위주 발음)에서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한자음이나 모음이 점점 단모음화 즉, 현실 위주의 발음으로 변모함을 알 수 있다. 8)

13. '괴팍하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괴팍하다(96%) 괴팍하다(2%) 쾌팍하다(2%)  
 '나'집단 : 괴팍하다(91%) 괴팍하다(2%) 쾌팍하다(7%)  
 '다'집단 : 괴팍하다(76%) 괴팍하다(19%) 쾌팍하다(5%) 로 나타나고,

62. '으레'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으레(62%) 으레(26%) 으래(12%)  
 '나'집단 : 으레(71%) 으레(22%) 으래(7%)  
 '다'집단 : 으레(45%) 으레(43%) 으래(12%) 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집단에서 19%의 응답자가 '괴팍하다'로, 43%의 응답자가 '으레'로 답한 것을 보면 표준어 규정 제10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50%이상의 응답자가 오기를 보이고 있다.

### 7) 준말 표기

53. 아무튼	60. 요컨대	78. 하여튼
---------	---------	---------

맞춤법 규정 제40항에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8) 상계서, 국어 어문 규정집, p.76.

[붙임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로 규정되어 있다.

53. '아무튼'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아무튼(96%)    아뿃든(4%)    아뿃튼(0%)    아뿃든(0%)

'나'집단 : 아무튼(75%)    아뿃든(17%)    아뿃튼(6%)    아뿃든(2%)

'다'집단 : 아무튼(74%)    아뿃든(14%)    아뿃튼(10%)    아뿃든(2%)

으로 나타나고,

60. '요컨대'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요컨대(74%)    요컨데(24%)    요하건데(2%)

'나'집단 : 요컨대(51%)    요컨데(47%)    요하건데(2%)

'다'집단 : 요컨대(55%)    요컨데(45%)    요하건데(0%) 로 나타나고,

78. '하여튼'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하여튼(98%)    하영든(0%)    하영튼(2%)

'나'집단 : 하여튼(95%)    하영든(2%)    하영튼(3%)

'다'집단 : 하여튼(88%)    하영든(10%)    하영튼(2%) 으로 나타난다.

'요컨대'나 '요컨데'냐? 즉 '대'와 '데'의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 '하데, 멉데'로 생각했음인지 오기 표기가 많다. 여기서는 분명히 '대'인 '요컨대'가 옳은 표기이다. '-대'와 '-데'의 잘못 표기는 현대어에서 언중들이 '대'와 '데'의 발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8)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4. 나들이	70. 재떨이
---------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에,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살림살이 쇠붙이 로 규정되어 있다.

14. ‘나들이’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나들이(100%) 나드리(0%)

‘나’집단 : 나들이(98%) 나드리(2%)

‘다’집단 : 나들이(83%) 나드리(17%)로 나타난다.

‘나들이’는 ‘나다(出)’와 ‘들다(入)’의 합성어로서 여기에 ‘-이’가 붙으므로 ‘나들이’가 되는 것이다. 즉 ‘나들-’에서 접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인 ‘나드리’로 적지않고 형태소를 밝혀 ‘나들이’로 적도록 한 것인데, ‘다’집단의 조사 분석 결과 17%의 응답자가 오기를 보이고 있다.

70. ‘재떨이’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재떨이(38%) 재털이(54%) 잿떨이(2%) 잿털이(6%)

‘나’집단 : 재떨이(22%) 재털이(67%) 잿떨이(7%) 잿털이(4%)

‘다’집단 : 재떨이(52%) 재털이(41%) 잿떨이(5%) 잿털이(2%)

로 나타난다.

‘재떨이’는 ‘재(灰)를 떨어뜨리다’에서, ‘재떨’에 접사 ‘이’가 붙으므로 ‘재떨이’가 된다. ‘재털이’가 아니고, ‘재떨이’가 바른 표기이다. 여기에는 많은 오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털다’로 오인하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면, ‘재를 떨어뜨리다’를 나타내는 말로서 ‘재떨이’로 보아야 한다.

## 9) 합성어

31. 머리카락	52. 수평
----------	--------

맞춤법 규정 제31항에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ㅎ’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이다.

‘머리카락’은 ‘머리ㅎ’과 ‘가락’이 어울려서 ‘머리카락’이 되었지만, ‘수평’에서는 ‘ㅎ’음이 왜 덧나지 않는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ㅎ’이 덧나지 않는 것은 암평, 암개미, 수개미, 암놈과 수놈 등이 있다.

31. ‘머리카락’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머리카락(90%) 머릿가락(8%) 머리가락(0%) 머릿가락(2%)

‘나’집단 : 머리카락(81%) 머릿가락(5%) 머리가락(5%) 머릿가락(9%)

‘다’집단 : 머리카락(79%) 머릿가락(12%) 머리가락(7%) 머릿가락(2%)

으로 나타난다.

52. ‘수평’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수평(66%) 수평(18%) 수평(16%) 수평(0%),

‘나’ 집단 : 수평(46%) 수평(35%) 수평(16%) 수평(3%)

‘다’ 집단 : 수평(48%) 수평(43%) 수평(7%) 수평(2%)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이 단어의 맞춤법에 대한 오기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중들이 표기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 10) 합성어와 접미사

35. 며칠 50. 설거지하다 56.애달프다

맞춤법 규정 제27항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

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꺾끗이 부엌일 첫아들 값없다 엇든다

그렇지만 문항에 나와 있는 ‘며칠, 설거지하다’처럼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말이 어울린 단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적용에 해당한다.

[붙임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며칠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등이다. ‘며칠’은 ‘몇-일(日)’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니,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日)’이 결합한 형태라면 [(몇닐→)면닐]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ㅈ’ 받침이 내리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sup>9)</sup>

35. ‘며칠’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며칠(80%) 몇일(18%) 몇칠(2%)

‘나’집단 : 며칠(56%) 몇일(41%) 몇칠(3%)

‘다’집단 : 며칠(76%) 몇일(24%) 몇칠(0%) 로 나타난다.

표준어 규정 제20항에 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는 발음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설거지’는 ‘설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것이’로 하지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0)</sup>

‘애달프다’는 이 용어 역시 古語의 잔재일 뿐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50. ‘설거지하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설거지하다(44%) 설것이하다(54%) 설거질하다(2%)

9)상계서, 국어 어문 규정집, p.74. ‘며칠’의 옛말은 ‘몇출, 몇출’ 임.

10)상계서, 국어 어문 규정집, p.217.

'나'집단 : 설거지하다(38%)    설것이하다(62%)    설거질하다(0%)  
 '다'집단 : 설거지하다(64%)    설것이하다(36%)    설거질하다(0%)  
 로 나타난다.

56. '애달프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애달프다(88%)    애달으다(12%)    애달푸다(0%)  
 '나'집단 : 애달프다(81%)    애달으다(16%)    애달푸다(3%)  
 '다'집단 : 애달프다(88%)    애달으다(10%)    애달푸다(2%)  
 로 나타난다. 이처럼 많은 오기를 보이고 있다.

11) '-시오'와 '-시요'(연결형과 종결형의 구분)

55. 안녕히 가십시오.

맞춤법 규정 제15항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오.    이리로 오시오.

[붙임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와 같이 [붙임2]에서 처럼 종결형이므로 '안녕히 가십시오.'가 옳은 표기이다.

55. '안녕히 가십시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안녕히 가십시오.(78%)    안녕히 가십시오.(14%)  
           안녕이 가십시오.(8%)  
 '나'집단 : 안녕히 가십시오.(45%)    안녕히 가십시오.(51%)  
           안녕이 가십시오.(4%)

'다'집단 : 안녕히 가십시오.(69%) 안녕히 가십시오.(29%)

안녕이 가십시오.(2%) 로 나타난다.

이 표기에 대해서 실례(實例)를 들면 1970년도 후반기에 제주 국제 공항 입구 표지판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 한쪽 표지판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한쪽에는 '어서 오십시오.'로 표기한 적이 있어 이것을 바르게 고친 적도 있다. 정리한다면, 종결형(종결문)일 때는 '오'로 표기하고 연결형일 때는 '요'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 12) 사잇소리 용법 (한자어)

72. 초점(焦點) 80. 횡수(回數)

맞춤법 규정 제30항에,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은 다음 경우에만 붙인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6개 단어만은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공주병(公主病), 왕자병(王子病)' 등은 6개 이외의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두 글자(한자어 형태소)로 된 한자어 중, 앞 글자의 모음 뒤에서 뒤 글자의 홀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6개 단어에 사이시옷을 붙여 적기로 한 것이다.

왜 이 6개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을 경우, 발음이나 뜻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항으로 한 것의 바른 표기인 '초점'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며, '횡수'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인다는 것이다.<sup>11)</sup>

72. '초점'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초점(44%)      초점(54%)      초점(2%)      초점(0%)

11) 교육부(1996), 고등 학교 문법, p.34.



‘나’집단 : 초점(48%)    초점(51%)    초점(1%)    초점(0%)  
 ‘다’집단 : 초점(40%)    초점(56%)    초점(2%)    초점(2%) 로 나타나고,

80. ‘획수’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획수(98%)    회수(2%)  
 ‘나’ 집단 : 획수(95%)    회수(5%)  
 ‘다’ 집단 : 획수(86%)    회수(14%) 로 나타난다.

이렇게 오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자어의 사잇시옷 표기법이 현실 발음에 맞지 않고 특히 사이시옷을 붙이는 단어 6개를 익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가’집단이 옳게 표기한 비율이 높은 것은 학교 교육이 영향이라고 본다. 아무튼 우리들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겠다.

## 2. 소리에 관한 것.

### 1) 표의주의 표기

#### 3. 가을걷이



한글 맞춤법 규정 제6항에, ‘ㄷ, ㅌ’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예) ‘말이’가 ‘마지’로 소리가 나더라도 ‘말이’로 적는다.

‘해돋이’가 ‘해도지’로 소리가 나더라도 ‘해돋이’로 적는다.

‘굳이’가 ‘구지’로 소리가 나더라도 ‘굳이’로 적는다.

‘같이’가 ‘가치’로 소리가 나더라도 ‘같이’로 적는다.

‘끝이’가 ‘꼬치’로 소리가 나더라도 ‘끝이’로 적는다.

‘활이다’가 ‘할치다’로 소리가 나더라도 ‘활이다’로 적는다.

‘걸히다’가 ‘거치다’로 소리가 나더라도 ‘걸히다’로 적는다.

‘달히다’가 ‘다치다’로 소리가 나더라도 ‘달히다’로 적는다.

‘묻히다’가 ‘무치다’로 소리가 나더라도 ‘묻히다’로 적는다.

와 같이 우리 한글은 음운 문자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맞춤법으로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의주의로 표기해야 한다.

3. ‘가을걷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가을걷이(90%) 가을거지(4%) 가을거디(6%)

‘나’집단 : 가을걷이(94%) 가을거지(4%) 가을거디(2%)

‘다’집단 : 가을걷이(90%) 가을거지(10%) 가을거디(0%)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집단에서는 응답자의 10%가 오기를 보이는데, ‘나’집단에서는 응답자의 6%가 오기를 보이고 있고, ‘다’집단에서는 응답자의 10%가 오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 2) ‘을’과 ‘를’의 구별

### 17. 내재을

맞춤법 규정 제11항에, 한자음에서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률’은 ‘열, 을’로 적는다.

모음 뒤

나열(羅列) 치열(齒列) 비열(卑劣)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ㄴ받침 뒤

분열(分裂) 선열(先烈) 진열(陳列) 백분율(百分율)

모음과 ㄴ받침 이외의 경우는 출석률(出席率), 외형률(外形率) 로 표기한다.

17. ‘내재을’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내재을(92%) 내제을(6%) 내제를(2%)

‘나’ 집단 : 내재을(80%) 내제을(9%) 내제를(11%)

‘다’ 집단 : 내재을(88%) 내제을(5%) 내제를(7%) 로 나타난다.

### 3) 두음법칙

#### 28. 이사무소

맞춤법 규정 제11항에, 한자음 '라,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역사(歷史) 예의(禮儀) 유행(流行) 이발(理髮)

다만,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나?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28. '이사무소'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이사무소(56%) 리사무소(42%), 이사무서(2%)

'나' 집단 : 이사무소(37%) 리사무소(60%) 이사무서(3%),

'다' 집단 : 이사무소(33%) 리사무소(67%) 이사무서(0%) 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집단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두음 법칙을 이해한 반면, '나', '다'집단의 다수는 한자음의 두음 법칙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많은 오기를 보이고 있다.



### 4) 한자어 본음 적기

#### 79. 휴게소

맞춤법 규정 제8항에, '계, 례, 폐, 혜'의 '궤'는 '궤'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궤'로 적는다.

계수(桂樹) 사례(謝禮) 폐품(廢品) 혜택(惠澤)

계집            핑계            계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송(偈頌)    계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휴게소’는 본음이 ‘계(憩)’임으로 ‘휴게소(休憩所)’라고 써야 한다.

79. 휴게소’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휴게소</u> (90%)	휴개소(6%)	휴계소(4%)	휴개소(0%)
‘나’집단 :	<u>휴계소</u> (77%)	휴개소(18%)	휴계소(5%)	휴개소(0%)
‘다’집단 :	<u>휴계소</u> (86%)	휴개소(7%)	휴계소(5%)	휴개소(2%)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 집단에서는 10%의 오기율을, ‘나’ 집단에서는 23%의 오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 집단에서는 14%의 오기율로, ‘가’ 집단이 비교적 바르게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0%이상이 오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한자 교육을 통한 한자음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준말

#### 36. 무말랭이

표준에 규정 제14항에,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치않다 → 귀찮다                      기음 → 김  
 무우 → 무      무말랭이              총각무

36. ‘무말랭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무말랭이</u> (84%)	무우말랭이(16%)	무우말랭이(0%)
‘나’집단 :	<u>무말랭이</u> (67%)	무우말랭이(30%)	무우말랭이(3%)
‘다’집단 :	<u>무말랭이</u> (43%)	무우말랭이(55%)	무우말랭이(2%)

로 나타난다.

‘무’에 대한 바른 표기는 표준어가 개정되기 전에는 ‘무우’였다. 이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와 ‘다’집단의 오기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은 변경된 맞춤법 규정이 파급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 집단은 88년에 개정된 표준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오기율이 57%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6) 표준어

### 45. 사글세

표준어 규정 제5항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삭월-세'를 '사글세'로 표기한다.

특히 여기서 '삭월세'는 1988년 표준어 사정에 의해 '사글세'로 바뀐 것이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졌다고 하여, 즉 대다수 사람들이 '사글세'로 사용하므로 '사글세'를 표준어로 정했다. '월세(月費)'의 딴 말인 '삭월세'를 '朔月費'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費'는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 된다 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한 언중들의 이해가 문제이다. 표준어가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표준어를 익혀야 하는데 교육의 기회가 없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못된 단어를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45. '사글세'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사글세(94%)      삭월세(4%)      삭을세(2%)

'나'집단 : 사글세(84%)      삭월세(14%)      삭을세(2%)

'다'집단 : 사글세(83%)      삭월세(7%)      삭을세(10%) 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집단인 '가' 집단에서 올바른 표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번쯤 다루었기 때문이다.

## 7) 표준어

### 46. 상추쌈

표준어 규정 제11항에,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각정이 → 각쟁이	나무라다 → 나무래다
미시가루 → 미숫-가루	바래다 → 바라다(望)
바램 → 바람(所望)	상치쌈 → 상추쌈
주착 → 주책(主着)	지리-하다 → 지루-하다

‘미수 → 미시’로, ‘상추 → 상치’로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로 보고 ‘미수,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주책(←주착, 主着), 지루하다(←지리하다 支離)’는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46. ‘상추쌈’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상추쌈(94%)	상춧쌈(6%)	상추삼(0%)	상춧삼(0%)
‘나’집단 :	상추쌈(95%)	상춧쌈(3%)	상추삼(1%)	상춧삼(1%)
‘다’집단 :	상추쌈(100%)	상춧쌈(0%)	상추삼(0%)	상춧삼(0%)

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4~6 %의 오기율을 나타난 것은 사잇소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쌈’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 ‘쌈’의 첫소리가 된소리이기 때문이다.

## 3. 그 밖의 것

### 1) 존대어

6. 같습니다. 66. 있습니다. 74. 댕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의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 쪽이 더 짝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규정에서는 ‘-습니다’와 ‘-읍니다’ 사이의 그러한 의미 차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 쪽으로 통일한 것이다. ‘-올습니다. -올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올시다’를 표준어로 삼았다.<sup>12)</sup>

먹습니다. 갓습니다. 없습시다. 있습니다. 좋습시다.

모음 뒤에는 ‘-비니다’임 : (예) 봅니다. 갑니다. 로 표기한다.

위 문항에 나온 단어는 변경된 표준어에 해당되어, 아직까지는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로 개정된 표기에 적응되고 있는 추세를 실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6. ‘갓습니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갓습니다(96%)    갓읍니다(4%)  
‘나’집단 : 갓습니다(95%)    갓읍니다(5%)  
‘다’집단 : 갓습니다(93%)    갓읍니다(7%) 로 나타난다.

66. ‘있습시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있습시다(94%)    있읍시다(6%)  
‘나’집단 : 있습시다(94%)    있읍시다(6%)  
‘다’집단 : 있습시다(93%)    있읍시다(7%) 로 나타난다.

위에 실태 분석 처럼 6~7%의 오기율을 보이는 것은 개정된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74. ‘땃습시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땃습시다(98%)    땃습시다(2%)    땃읍시다(0%)  
‘나’집단 : 땃습시다(94%)    땃습시다(2%)    땃읍시다(4%)

12) 교육부 (1993)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 214~215

'다'집단 : 탓습니다(96%) 탓습니다(2%) 탓읍니다(2%) 로 나타난다.

위에 실태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나' 집단이 잘못 사용하는 비율이 '가', '다' 집단 보다 2~3% 높은 것은 아직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 2) 俗音과 本音

### 7.곤란 59. 오뉴월

맞춤법 규정 제52항에,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여기서 곤란(困難)의 難의 본음은 '난'인데 속음인 '란'으로 나며, 또한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바른 표기가 되겠다.

본음으로 나는 것으로는

승낙(承諾) 분노(忿怒) 토론(討論) 오륙십(五六十) 십일(十日)

목재(木材)

인데 대하여 속음으로 나는 것은

쾌락(快諾) 대로(大怒) 의논(議論) 오뉴월(五六月) 유월(六月)

시월(十月) 모과(木瓜) 등이다.

7. '곤란'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곤란(98%), 곤난(2%)

'나' 집단 : 곤란(93%), 곤난(7%)

'다' 집단 : 곤란(95%), 곤난(5%) 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볼 때, 응답자 중 93% 이상이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흔히 쓰는 단어이므로 정확히 익힌 결과라고 본다.

59. '오뉴월'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오뉴월(86%) 오육월(14%)



'나' 집단 : 오뉴월(89%) 오육월(11%)

'다' 집단 : 오뉴월(98%) 오육월(2%) 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집단인 경우 귀에 익숙한 대로 답한 반면 '가'집단과 '나'집단은 형태소 위주의 분석적인 대답을 하여 많이 틀린 답이 나왔다,

### 3) '-이'와 '-히'의 구별

8.곰곰이 9.깨끗이 27.뚜렷이 51.솔직히 64.일찍이 75.틈틈이

맞춤법 규정 제51항에,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그 말의 성질로 보아 '하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은 '-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로 표기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분명히 발음이 '이'로 나거나 '히'로 나는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1.'이'로만 나는 것

깨끗이 느긋이 더욱이 따뜻이 반듯이 의적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많이 헛되이 겹겹이 일일이 틈틈이

#### 2.'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3.'이'나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각별히 쓸쓸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섭섭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고요히 도저히

로 규정되어 있다.

#### 8. '곰곰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곰곰이(16%) 곰곰히(84%) 공곰이(0%)

'나'집단 : 곰곰이(35%) 곰곰히(64%) 공곰이(1%)

'다'집단 : 곰곰이(38%) 곰곰히(60%) 공곰이(2%) 로 나타나고,

9. '깨끗이'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깨끗이(46%) 깨끗히(54%)

'나'집단 : 깨끗이(62%) 깨끗히(38%)

'다'집단 : 깨끗이(74%) 깨끗히(26%) 로 나타나고,

27. '뚜렷이'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뚜렷이(58%) 뚜렷히(42%)

'나'집단 : 뚜렷이(64%) 뚜렷히(36%)

'다'집단 : 뚜렷이(86%) 뚜렷히(14%) 로 나타나고,

51. '솔직히'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솔직히(98%) 솔직이(2%)

'나'집단 : 솔직히(89%) 솔직이(11%)

'다'집단 : 솔직히(72%) 솔직이(28%) 로 나타난다.

'가' 집단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보면, '곰곰이'의 잘못 사용한 비율이 84%에 해당되며 '깨끗이'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54%에 해당하고 있다. 나머지 '뚜렷이'가 42%, '솔직히'가 2%이다.

특히 '솔직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988년 이전에 맞춤법 표기 규정에는 '솔직이'가 옳은 표기이며 '솔직히'는 틀린 표기로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는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국정 교과서(그 당시 문교부)와 한글 학회에서 발간한 국어 사전에서는 '솔직이'로 쓰고 있었으며, 그 외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는 '솔직히'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에 나온 '솔직이'를 표준어 또는 맞춤법 표기에 맞는 것으로 표기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후부터는 정반대로 '솔직히'를 옳은 것으로 '솔직이'는 틀린 표기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히'와 '-이'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히'로 표기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중들이 빨리 간파하여 옳은 맞춤법의 이론을 이해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

다.

64. '일찍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일찍이(48%) 일찌기(50%) 일찍기(2%)

'나'집단 : 일찍이(56%) 일찌기(38%) 일찍기(6%)

'다'집단 : 일찍이(22%) 일찌기(76%) 일찍기(2%) 로 나타난다.

'다'집단은 응답자의 78%의 오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라는 자립 형태소로 여기에 접사 '-이'가 붙는다는 사실이 맞춤법 규정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숙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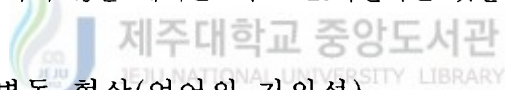
75. '틈틈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틈틈이(46%) 틈틈히(52%) 듄틈이(2%)

'나'집단 : 틈틈이(61%) 틈틈히(33%) 듄틈이(6%)

'다'집단 : 틈틈이(88%) 틈틈히(10%) 듄틈이(2%) 로 나타난다.

'가'집단에서 응답자의 54%가 오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로 발음되는지 '-히'로 발음되는지부터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하고, 규정에 명시했듯이 '이'와 '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히'로 표기한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 4) 음운의 변동 현상(언어의 자의성)

10.꼭두각시, 11.꺾다, 12.꽃꽂이, 20.눈썹, 24.뚫단배,  
25.뚫자리, 42. 부뚫치다, 부뚫히다, 44. 부치다

윗 단어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언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언중들이 잘못 쓰기 쉬운 단어들이며, 흔히 많이 틀리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바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며 맞춤법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다. 사물의 이름을 언어로 命名할 때에는 사회적인 약속과 자의성에 의해서 정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

다. 우리 국어는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다고들 말한다. 사실 혼동을 가져오는 언어들  
 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양인으로서 우리글 우리말을 바르게  
 적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 즉, 어휘부터 틀리지 않게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10 '꼭두각시'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꼭두각시(88%) 꼭두각시(8%) 꼭두각씨(4%) 꼭두각씨(0%)  
 '나'집단 : 꼭두각시(80%) 꼭두각시(12%) 꼭두각씨(8%) 꼭두각씨(0%)  
 '다'집단 : 꼭두각시(89%) 꼭두각시(7%) 꼭두각씨(2%) 꼭두각씨(2%) 로,

11 '꺾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꺾다(84%) 꺾다(16%) 꺾다(0%) 꺾다(0%)  
 '나'집단 : 꺾다(71%) 꺾다(29%) 꺾다(0%) 꺾다(0%)  
 '다'집단 : 꺾다(69%) 꺾다(22%) 꺾다(7%) 꺾다(2%) 로,

12 '꽃꽂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꽃꽂이(82%) 꽃꽂이(12%) 꽃꼬지(0%) 꽃꽂이(6%)  
 '나'집단 : 꽃꽂이(75%) 꽃꽂이(10%) 꽃꼬지(6%) 꽃꽂이(9%)  
 '다'집단 : 꽃꽂이(86%) 꽃꽂이(10%) 꽃꼬지(2%) 꽃꽂이(2%) 로,

20. '눈썰'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눈썰(100%) 눈썰(0%) 눈썰(0%)  
 '나'집단 : 눈썰(93%) 눈썰(6%) 눈썰(1%)  
 '다'집단 : 눈썰(86%) 눈썰(10%) 눈썰(4%) 로,

24. '돛단배'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돛단배(80%) 돛단배(2%) 돛단배(18%) 돛단배(0%)  
 '나'집단 : 돛단배(65%) 돛단배(9%) 돛단배(24%) 돛단배(2%)  
 '다'집단 : 돛단배(67%) 돛단배(19%) 돛단배(14%) 돛단배(0%) 로,

25. 'dotzari'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dotzari(98%) dotzari(2%) dotzari(0%) dotzari(0%)  
'나'집단 : dotzari(80%) dotzari(4%) dotzari(6%) dotzari(10%)  
'다'집단 : dotzari(74%) dotzari(19%) dotzari(5%) dotzari(2%) 로,

30. 'matsum'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matsum(76%) matsum(20%) matsum(4%)  
'나'집단 : matsum(76%) matsum(18%) matsum(6%)  
'다'집단 : matsum(58%) matsum(40%) matsum(2%) 으로,

42 '부딧치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부딧치다(36%) 부딧히다(60%) 부딧히다(4%) 부딧치다(0%)  
'나'집단 : 부딧치다(25%) 부딧히다(61%) 부딧히다(10%) 부딧치다(4%)  
'다'집단 : 부딧치다(69%) 부딧히다(31%) 부딧히다(0%) 부딧치다(0%) 로,

44. '부치다'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부치다(80%) 부치다(20%) 부치다(0%) 부치다(0%)  
'나'집단 : 부치다(54%) 부치다(39%) 부치다(3%) 부치다(4%)  
'다'집단 : 부치다(88%) 부치다(10%) 부치다(2%) 부치다(0%)

로 나타난다.

이처럼, 받침을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맞춤법 사용 실태 분석한 결과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오기(誤記)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언중들이 우리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처음부터 우리말의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 등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틀리기 쉬운 단어에도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복하여 익혀나가는 것만이 바른 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고 본다.

'10. 꼭두각시'는 종전에는 '꼭둑각시'를 맞는 것으로 정했었으나 언중들이 현실 발음(동음생략)을 고려하여 '꼭뚜각시'를 표준어로 규정하였다.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꼭뚜각시, 꼭뚜각씨' 등 경음표기를 맞는 것으로 일부 응답자가 표기한 것은

발음 위주의 표기 결과이다.

‘2. 꽃꽂이’는 단어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기(誤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어는 ‘꽃(花)+꽂다’가 파생어로 되어 ‘꽃꽂이’란 파생명사가 형성된 것을 이해한다면 표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뫼자리’는 ‘나’집단인 경우 오기율(誤記率)이 26%에 해당된다. 이는 받침 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15세기 표기에는 8종성법과 7종성법이라는 규정, 또는 현대 맞춤법 7종성법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영향을 받아 잘못 표기되고 있다고 본다.

17세기의 7종성법 : ㄱ, ㄴ, ㅅ, ㄹ, ㅁ, ㅂ, ㅇ

→ 현재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일곱 뿐이다.

따라서 이 일곱 소리밖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그것은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음운의 변동 현상의 원인도 있을 듯 하며, 음운과 표기의 혼동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42. ‘부뫼치다’와 ‘부뫼히다’의 원형은 ‘부뫼다’이다. ‘부뫼다’에서 강하게 발음하기 위한 강제 접미사 ‘-치-’가 쓰여 ‘부뫼치다’가 되고, ‘부뫼히다’는 ‘부뫼다’에서 ‘-히-’라는 피동 접미사가 쓰였다. 이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다’집단은의 경우, ‘부뫼치다’는 69%, ‘부뫼히다’는 31%가 옳게 표기 했다. 이 문항만은 두 단어 모두 바른 표기이기 때문에 ‘부뫼치다’, ‘부뫼히다’ 둘 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둘 다 표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언어의 바른 표기는 어법 즉, 표의주의 표기법도 잘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문법 과목이며, 이것은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쓰는 데, 필요함을 재삼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 교과서는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쓰는데 필요한 책이며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입시 위주의 현 교육 현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44. ‘부치다’는 ‘붙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붙이다’와 ‘부치다’가 있다. 이들은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하여 쓰이는데 한글 맞춤법 제57항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① 힘이 부치는 일이다. ② 논밭을 부친다. ③ 편지를 부친다. ④ 빈대떡을 부친다. ⑤ 식목일에 부치는 글. ⑥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⑦ 인쇄에 부치는 원고. ⑧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등이다 여기서는 ‘부치다’의 바른 표기를 묻는

것으로 '붙치다, 붓치다' 등의 오기가 꽤 있어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 5)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15. 나무꾼

맞춤법 규정 제54항에, 다음과 같은 '접사는 된소리로 적는다.'로 규정되어 있음.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계꾼    빛깔    성깔

15. '나무꾼'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나무꾼(30%)    나뭇꾼(68%)    나뭇군(2%)    나무군(0%)

'나'집단 : 나무꾼(21%)    나뭇꾼(69%)    나뭇군(10%)    나무군(0%)

'다'집단 : 나무꾼(40%)    나뭇꾼(44%)    나뭇군(14%)    나무군(2%)

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나무꾼'의 표기도 정확하게 쓰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 단어 외에 '지계꾼', '사냥꾼', '일꾼' 들도 다소 틀리게 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8년 이전에는 '나뭇군, 지계꾼, 사냥군' 이 표준어로 정했기 때문이다. '일꾼'은 전에도 '일꾼'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일군(一軍)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 6) 표준어로서 잘못 적기 쉬운 말

### 22. 달걀

'달걀'은 '닭의 알'이 음절 축약되어 형성된 단어인데, 형태소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쓰도록 한 것이다.

22. '달걀'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달걀(98%)    닭걀(2%)    닭알(0%)

'나'집단 : 달걀(94%)    닭걀(5%)    닭알(1%)

'다'집단 : 달걀(98%)    닭걀(2%)    닭알(0%) 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닭걀'로 오기한 것도 2% 이상 나타난다. 이는 어원을 지나치게 밝혀 보려는 언중 심리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 7) 표준어

### 23. 돌잔치

표준어 규정 제6항에,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 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돌’은 생일, ‘똥’은 ‘한글 반포 500똥’ 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리하여 ‘똥잔치’가 아니라, ‘돌잔치’가 올바른 표기인 것이다.

23. ‘돌잔치’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 : 돌잔치(86%)      똥잔치(14%)

‘나’ 집단 : 돌잔치(64%)      똥잔치(36%)

‘다’ 집단 : 돌잔치(64%)      똥잔치(36%) 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가’집단이 대체로 옳게 표기했음이 나타난다. 이는 ‘가’집단이 고등학교생으로서 개정된 맞춤법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8) 합성명사

### 26. 뒤꿈치      76. 팔꿈치

‘뒤꿈치’에는 사이시옷이 붙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잇소리 현상에서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나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할 때 ‘뒤+꿈치’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받칠 수 없다는 규정이므로 ‘뒤꿈치’로 표기가 옳고 ‘꿈치’의 표기도 ‘꿈치’가 아니고 ‘꿈치’가 옳은 표기이다. 꿈치를 표준어 및 맞춤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6. '뒤꿈치'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뒤꿈치(0%)    뒷꿈치(6%)    뒷꿈지(2%)    뒷꿈치(92%)

'나'집단 : 뒤꿈치(4%)    뒷꿈치(13%)    뒷꿈지(7%)    뒷꿈치(76%)

'다'집단 : 뒤꿈치(5%)    뒷꿈치(74%)    뒷꿈지(14%)    뒷꿈치(7%)

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오기율이 무려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집단의 조사를 분석해 보면, 100%의 오기율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사잇소리 현상은 뒷말의 예사소리일 경우에는 적용되고 된소리나 거센 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언중들은 잘못 적을 수 있다.

76. '팔꿈치'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팔꿈치(94%)    팔꿈치(6%)    팔꿈지(0%)

'나'집단 : 팔꿈치(82%)    팔꿈치(18%)    팔꿈지(0%)

'다'집단 : 팔꿈치(67%)    팔꿈치(26%)    팔꿈지(7%) 로 나타난다.

위에서 나타나듯이 '다'집단은 33%의 오기율을 보이고 있다.



## 9) 언어가 변한 사항

### 30. 맞춤옷

맞춤법 규정 제55항에,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즉, 종전에 '맞추다(맞게 하다)'와 '마추다(주문하다)'로 구별하여 써오던 것을 모두 '맞추다'로 적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맞춤옷'이 옳은 표기가 된다.

30. '맞춤옷'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맞춤옷(76%)    맞춤옷(20%)    맞춤옷(4%)

‘나’집단 : 맞춤옷(76%) 맞춤옷(18%) 맞춤옷(6%)

‘다’집단 : 맞춤옷(58%) 맞춤옷(40%) 맞춤옷(2%) 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구(舊) 맞춤법 표기와 혼동을 가져와서 높은 오기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맞춤법 교육이 필요하다.

## 10) 표준말

### 32. 머리말

이는 발음이 [머리말] 로 나느냐 [머릿말] → [머린말] 로 나느냐에 따라 표기를 ‘머리말’과 ‘머릿말’로 갈리는데 국어 사전에는 ‘머리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머리말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사잇소리 규정에 적용해 볼 때 ‘머리말’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말’로 된소리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표준어로는 ‘머리말’이 된다.

32. ‘머리말’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머리말(44%) 머릿말(56%)

‘나’집단 : 머리말(67%) 머릿말(33%)

‘다’집단 : 머리말(52%) 머릿말(48%) 로 나타난다.

이러한 오기는 ‘머릿니(頭髮蟲)’, ‘머릿방’ 등과 유추하기 쉽기 때문인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 11) 어미

### 33. 먹으려고

‘먹으려고’와 ‘먹을려고’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인가를 묻는 것인데

33. ‘먹으려고’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먹으려고(82%) 먹을려고(14%) 먹으려고(2%) 먹을려고(2%)

'나'집단 : 먹으려고(81%)    먹으려고(17%)    먹으려고(2%)    먹으려고(2%)  
 '다'집단 : 먹으려고(82%)    먹으려고(14%)    먹으려고(2%)    먹으려고(0%)

로 나타난다.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고'는 받침없는 어간 다음에 쓰이고, 받침 있는 어간 때에는 매개모음 '-으-'가 개입하여 '-으려고'가 어간에 연결된다. 그런데 요즘 언중들은 여기에 '르'음을 더 개입하여 '올려고', '먹으려고' 등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표기에도 영향을 받아 '먹으려고'가 올바른 것인 줄 착각하여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 12) 모음

### 34. 멋쟁이

표준어 규정 제9항에,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냄비

[붙임1] 다음 단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

[붙임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곤충)    담쟁이    욱심쟁이

34. '멋쟁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멋쟁이(80%)      멋장이(18%)      먼쟁이(2%)  
 '나'집단 : 멋쟁이(80%)      멋장이(20%)      먼쟁이(0%)  
 '다'집단 : 멋쟁이(64%)      멋장이(36%)      먼쟁이(0%) 로 나타난다.

위에서 나타나듯이 誤記인 '멋장이'가 18%~36%나 차지한 것은, 개정된 표준

어 규정에서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외에는 '-쟁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숙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똑같은 음운조건인데 의미에 따라 'ㅣ'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분 부담이 언중들에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3) '로써'의 조사

37. 믿음으로써	77. 공부함으로써
-----------	------------

맞춤법 규정 제57항에,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으)로서 (자격)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 (수단, 방법) : 닭으로써 꺾을 대신할 수 없다.

-(으)므로 (어미)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으)(음)으로써 (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 사는 보람을 느꼈다.

'-(으)로서'는 자격 '-(으)로써'는 수단,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문항의 '믿다'와 '공부하다'는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명사형에 '으로써'의 조사가 결합되어 '믿음으로써', '공부함으로써'가 된다.

문항에서 제시된 예인 37번과 77번을 분석해 보면, 먼저 '믿음으로써'의 경우는

→ 믿음('믿다'의 명사형) + 으로써(조사)의 결합이고,

두번째인 '공부함으로써'의 경우에는

→ 공부하('공부하다'의 명사형) + 으로써(조사)의 결합이다.

37. '믿음으로써'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믿음으로써(70%) 믿음으로서(20%) 믿으므로써(10%)  
          믿으므로써(0%)

'나'집단 : 믿음으로써(51%) 믿음으로서(42%) 믿으므로써(5%)  
          믿으므로써(2%)

'다'집단 : 믿음으로써(69%) 믿음으로서(19%) 믿음으로써(7%)  
          믿으므로써(5%)로 나타난다.

77. '공부함으로써'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공부함으로써</u> (50%)	공부하므로써(26%)
	공부하므로서(4%)	공부함으로써(20%)
'나'집단 :	<u>공부함으로써</u> (54%)	공부하므로써(20%),
	공부하므로서(3%)	공부함으로써(23%)
'다'집단 :	<u>공부함으로써</u> (40%)	공부하므로써(29%)
	공부하므로서(17%)	공부함으로써(14%) 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실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기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중들이 문법에 관한 체규정 이해가 부족에서 온 것이다.

#### 14) 합성어와 불규칙 용언

38. <u>벚꽃</u>	65. <u>일컫다</u>
---------------	----------------

'벚꽃'은 '버지'의 준말이 '벚'이므로 벚꽃으로 적는다.

'일컫다'는 '말하다'의 의미로 'ㄷ'불규칙 용언(동사)임을 익혀서 표기해야 하겠다.

38. '벚꽃'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벚꽃</u> (62%)	벚꽃(38%)	벚꽃(0%)
'나'집단 :	<u>벚꽃</u> (63%)	벚꽃(36%)	벚꽃(1%)
'다'집단 :	<u>벚꽃</u> (67%)	벚꽃(28%)	벚꽃(5%) 으로 나타나며,

65. '일컫다' 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집단 :	<u>일컫다</u> (98%)	일컫다(2%)	일컫다(0%)	일컫다(0%)
'나'집단 :	<u>일컫다</u> (84%)	일컫다(10%)	일컫다(5%)	일컫다(1%)
'다'집단 :	<u>일컫다</u> (83%)	일컫다(10%)	일컫다(5%)	일컫다(2%)

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실태 분석에서 보듯이 '나'와 '다'집단에서는 응답자의 13% 이상이 오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문법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다.

15) 접미사

43. 붉으락푸르락

이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대원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형용사 '붉-', '푸르-'의 어간 형태소에 어미 '-(으)락'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말이므로 '붉으락푸르락'이 옳은 표기이다.

43. '붉으락푸르락'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붉으락푸르락(46%) 불그락푸르락(28%) 붉그락푸르락(26%)  
          불으락푸르락(0%)

'나'집단 : 붉으락푸르락(51%) 불그락푸르락(20%) 붉그락푸르락(26%)  
          불으락푸르락(3%)

'다'집단 : 붉으락푸르락(43%) 불그락푸르락(31%) 붉그락푸르락(24%)  
          불으락푸르락(2%)

으로 나타난다. 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절반 이상이 맞춤법을 잘못 이해하여 오기를 보이고 있다.



16) 비격식체

58. 영숙이에요

이 표기는 '영숙이에요'가 옳은 표기이다. '해요'체 표기이며, '이에요'는 특수한 기능을 지닌 조사로 쓰인다.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제26항에 복수 표준어로 '-이에요'와 '-이어요'를 삼고 있다.

58. '영숙이에요'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영숙이에요(38%) 영숙이예요(62%) 영숙이애요(0%)

'나'집단: 영숙이에요(39%) 영숙이예요(59%) 영숙이애요(2%)

‘다’집단: 영숙이에요(33%) 영숙이에요(62%) 영숙이애요(5%)  
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오기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sup>13)</sup>

## 17) 민간어원설

### 61. 우레

위 표기는 1988년 1월 이전에는 ‘우뢰’가 표준어로 정해졌으며, 1989년 3월1일 이후에는 ‘우레’로 고쳐서 표준어로 정했다.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어식 표기로 바뀌어 ‘우뢰(雨雷)’로 써왔던 것이다. 이에 옛날부터 전통음인 ‘우레’를 표준어로 되돌려 정한 것이다.

61 ‘우레’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우레(6%)                      우뢰(94%)  
‘나’집단 : 우레(10%)                     우뢰(90%)  
‘다’집단 : 우레(7%)                      우뢰 (93%) 로 나타난다.

위 실태 분석과 같이 대부분이 ‘우뢰’를 맞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바뀐 표준어에 대한 교육이 요망된다.

## 18) ‘-던’과 ‘-든’의 구별

### 67. 잘하던데

맞춤법 규정 제56항에,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그렇게 좋던가?

그 사람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도 방법에서 다루었다.

(‘-든’은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을 표시하는 연결어미 ‘-든지’가 줄어진 형태다.)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잘하던데’로 표기해야 한다.

67. ‘잘하던데’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잘하던데(92%)      잘하든데(4%)      잘하던대(4%)

‘나’집단 : 잘하던데(90%)      잘하든데(6%)      잘하던대(4%)

‘다’집단 : 잘하던데(98%)      잘하든데(2%)      잘하던대(5%) 로 나타난다.

이처럼 오기를 보이는 것은 ‘-던’과 ‘-든’의 구별과 ‘-는데’와 ‘-는데’의 구별을 잘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 19) 언어의 자의성

### 68. 장난

‘작란’(作亂)에서 ‘장난’은 그대로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 붙여진 이름인데, 잘못 이해하여 ‘작란’ 또는 ‘작난’의 자음동화로 오인하여 쓰기 쉬운 단어이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여 적기 어려운 표기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68. ‘장난’의 실태 분석은,

‘가’ 집단에서는 장난(90%)      작난(5%)      작란(5%) 으로 오기율을 보이는데, 이에 비해 ‘나’ 집단과 ‘다’ 집단에서는 100%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 같다.

## 20) 언어가 변한 형태

### 71. 주책



표준어 규정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주책[主着]’은 한자어로 ‘주착’인데, 표준어 규정에서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책’이 옳은 표기이다.

71. ‘주책’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주책(78%) 주착(20%) 주책(2%)

‘나’집단 : 주책(97%) 주착(2%) 주책(1%)

‘다’집단 : 주책(93%) 주착(5%) 주책(2%) 으로 나타난다.

이 실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젊은 층에서 오기율이 높게 나타난다.

## 21) 표준어 규정 (‘간’과 ‘칸’의 구별)

### 73. 칸막이

표준어 규정 제3항에,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끄나불 → 크나플    나밭꽃 → 나팔꽃    동녘 → 동녁

새벽녘 → 새벽녁    부엌 → 부엌    간 → 칸

떨어먹다(재물을 다 없애다) → 털어먹다

‘칸’과 ‘간’의 구분에서 ‘칸’은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며, ‘간(間)’은 ‘초가삼간(草家三間) 대하천간(大廈千間)’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등 칸, 한 칸 벌린다.’ 등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칸’만 쓰기로 된 것이다.

73. ‘칸막이’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 칸막이(88%)    간막이(8%)    칸막기(4%)    칸마기(0%)

‘나’집단 : 칸막이(91%)    간막이(7%)    칸막기(2%)    칸마기(0%)

‘다’집단 : 칸막이(81%)    간막이(7%)    칸막기(7%)    칸마기(5%)

로 나타난다. 이 실태 분석에서와 같이 ‘가’, ‘다’ 집단에서 오기율이 높게 남을 알 수 있다.

## 22) 기타

### 41. 복숭아

‘복숭아’는 먹는 열매임을 알아야겠다. 그런데 꽃이름인 ‘봉선화’와 혼동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연유해서 ‘봉숭화’, 또는 ‘복숭화’로 오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1 ‘복숭아’의 실태 분석은,

‘가’집단 :복숭아(76%)    봉숭아(16%)    봉숭화(6%)    복숭화(2%)

‘나’집단 :복숭아(65%)    봉숭아(16%)    봉숭화(17%)    복숭화(2%)

‘다’집단 :복숭아(67%)    봉숭아(19%)    봉숭화(7%)    복숭화(7%)

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바른 표기 사용실태 분석까지 100분율에 의해 살펴 봄으로써 얼마나 한글을 바르게 사용했는가, 또한 한글 맞춤법 바른 표기 실태 일람표를 작성하므로써 바른 표기 상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4. 한글 맞춤법 바른 표기의 실태 일람표

문항 번호	바른 표기	집단별 바른 표기 사용 실태(%)			비고
		'가'집단	'나'집단	'다'집단	
1	가으내	50	39	43	
2	가까워	88	82	60	
3	가을걷이	90	94	90	
4	갑자기	88	82	93	
5	갓스물	88	81	84	
6	갓습니다	96	95	93	
7	곤란	98	93	95	
8	곰곰이	16	35	38	
9	깨끗이	46	62	74	
10	꼭두각시	88	80	89	
11	꿂다	84	71	69	
12	꽃꽂이	82	75	86	
13	피딱하다	96	91	76	
14	나들이	100	98	83	
15	나무꾼	30	21	40	
16	나뭇잎	94	92	46	
17	내재울	93	80	88	
18	넉넉지	52	57	53	
19	노리개	94	88	93	
20	눈썹	100	93	86	
21	다달이	90	79	81	
22	달걀	98	84	93	
23	돌잔치	86	64	64	
24	뚫단배	80	65	67	
25	뚫자리	98	80	74	
26	뒤꿈치	0	4	5	
27	뚜렷이	58	64	86	
28	이사무소	56	37	33	
29	만만찮다	96	86	81	
30	맞춤옷	76	76	58	
31	머리카락	90	81	79	
32	머리말	44	67	52	
33	먹으려고	82	81	93	
34	멋쟁이	80	80	64	
35	며칠	80	56	76	
36	무말랭이	84	67	43	
37	믿음으로써	70	51	69	
38	벚꽃	62	63	67	
39	벧사공	100	100	96	
40	베갯잇	58	46	50	

문항 번호	바른 표기	집단별 바른 표기 사용 실태(%)			비고
		'가'집단	'나'집단	'다'집단	
41	복숭아	76	65	67	
42	부딪치다	36	25	69	
	부딪히다	60	61	31	
43	붉으라푸르라	46	51	43	
44	부치다	80	54	88	
45	사글세	94	84	83	
46	상추쌈	94	95	100	
47	생각지	66	62	64	
48	생각건대	2	7	2	
49	서슴지	2	10	17	
50	설거지하다	44	38	64	
51	솔직히	98	89	72	
52	수평	66	46	48	
53	아무튼	96	75	74	
54	아름다워	92	91	83	
55	안녕히 가십시오	78	45	69	
56	애달프다	88	81	88	
57	연구토록	92	84	93	
58	영속이에요	38	39	33	
59	오늘월	86	89	98	
60	요컨대	74	51	55	
61	우레	6	10	7	
62	으레	62	71	45	
63	익숙지	6	20	24	
64	일찍이	48	56	22	
65	일컫다	98	84	83	
66	있습니다	94	94	93	
67	잘하던데	92	90	93	
68	장난	100	100	90	
69	적잖은	98	96	81	
70	재떨이	38	22	52	
71	주책	78	97	93	
72	초점	44	48	40	
73	칸막이	88	91	81	
74	땀습니다	98	94	96	
75	툼툼이	46	61	88	
76	팔꿈치	94	82	67	
77	공부함으로써	40	54	40	
78	하여튼	98	95	88	
79	휴게소	90	77	86	
80	횃수	98	95	86	

## IV. 올바른 한글 맞춤법 使用을 爲한 指導 方法

### 1. 국어(國語)와 언어(言語)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국어와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어는 언어다.<sup>14)</sup> 우리는 國語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또 남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며, 국어를 통하여 祖上이 이룩한 문화를 이어받고, 우리가 이룩한 바를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어는 곧 우리 나라 사람이 쓰는 한국말이다.<sup>15)</sup> 우리 나라 사람은 오로지 한국말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는 그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어의 중요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국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어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어에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있다. 문자언어에는 표의문자 즉 뜻글자와, 음운문자 즉 소리글자로 나눌 때,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이다. 소리글자인 한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 즉, 음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음운이란 무엇인가. 음운은 조선 초(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모두 28자를 만들었다. 이 스물 여덟자가 곧 기본적인 음운이 되는 것이다. 이 음운 즉 자음과 모음이 우리 한글을 만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 음운이 결합하여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태소와 단어는 또다시 결합하여 수많은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14) 문교부(1985), 고등학교 국어1, 이희승. 국어 개념, p.149.

15)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어2, 허용, p.17.

인간 생활이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 이에 따라 어휘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생기고, 또한 시대가 변할 때 그에 따라 언어도 변하는 것이다. 언어에도 생명이 있어서 신생, 성장, 사멸하는 언어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언어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 언어와 인간 생활의 관계, 이처럼 중요한 언어 즉, 한글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 맞춤법 지도 방법은 주로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표준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문법적인 관계, 어문에 관한 규정 등을 습득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현실 위주의 발음 표기, 그 외 혼동을 가져오는 단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 2. 음운의 변동과 어휘

국어의 음운에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음 19개 모두 40개가 있다.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을려면 이들을 분명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sup>16)</sup> 이 음운과 음운이 결합하여 형태소를 만들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든다.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언어)의 단위. 더 이상 분석하면 뜻을 잃어버리거나 뜻을 일정하게 잡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곧 형태소는 음운 자체(ㄱ, ㅏ 등)가 되는 경우와 모음 자체(아, 어 등) 또는 음운과 음운이 결합(강, 산, 나, 너 등)하여 된다. 또한 한 단어 자체가 한 형태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운과 음운이 결합하여 뜻을 가지는 언어 형식,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들을 단어(單語)라 한다. 여기에서

---

16)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22.

'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감탄사)이라 하며, 후자의 경우는 관계언(조사)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말을 단어라 한다.

음절은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를 말한다. 음절은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일 뿐, 그것이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음절은 형태소와 구별이 된다.<sup>17)</sup>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경계에서 인접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일이 있다.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 한다.<sup>18)</sup>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 위치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한 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는 동화 현상이 있다. 동화 현상에는 자음동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축약과 탈락, 된소리 되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우리 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말의 첫 머리에 'ㄱ'모음을 중심으로 'ㄱ'모음이 결합된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앞에서는 'ㄴ', 'ㄹ'음이 오기를 꺼리는 현상이다. 두음법칙은 한글이나 한자에 다 적용되고 있다. 다만 외래어나 특수한 단어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외래어의 경우 '라디오(radio)', '램프(lamp)', '뉴스(news)', '루트(route)' 등은 'ㄱ'모음 앞에서 'ㄹ'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고, 특수한 단어인 '녀석', '남남' 등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특수한 '단어'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앞에서 실태 분석한 '28. 이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다면, '이사무소'는 한자어에 속한다. '마을 리(里)' 라는 음과 뜻으로 나눌 때에는 '리(里)'로 쓰거나, 앞에 올 때에는 '이(里)'로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또 '노동자, 노동

17)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26.

18) 교육부 (1996), 고등학교 문법, p.29.

신문, 논문(論文), 역사' 등의 한자어도 '로동자, 로동신문, 론문, 력사'가 아니고, 앞에 표기한대로 '노동자, 노동신문, 논문, 역사'로 표기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두음법칙 규정이 없어서 한자의 원음을 그대로 살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두음법칙에 해당되는 것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월일(年月日)'표기이다. '년월일'로 표기해야 하는 지, '연월일'로 표기해야 하는 지이다. 이것도 첫머리 표기이므로, 첫머리로 표기할 때는 '연월일'로 적고, 첫머리가 아닌 '몇 년' 경우에는 년(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97년'으로 표기할 경우이다. 그러나 지금도 '년월일'로 틀리게 쓰는데 이를 바르게 고쳐야 하겠다. 틀리게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두음법칙 규정의 이해 부족이나, 이에 관련한 언어 매체의 방송을 통해 설명할 때 잘못 이해한 데서 온 듯하다. 실태 분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집단'(30대 이상인 세대)에 오기율이 높음은 잘못된 습관에서 온 것 같다. 두음법칙 규정을 습득하여 바르게 써야겠다. 두음법칙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28. 이사무소' 하나뿐이다.

## 2) 음운 변동 현상

###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용어는 개정 전에는 '말음법칙'이라고 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국어 표기에서 중요하다. 이 끝소리 규칙을 알아야 보다 더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끝소리로 쓸 수 있는 자음은 7개 뿐이라는 것이다.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다.

'꽃' → [꼇] '없' → [업] '꽃꽂이' → [꼇꼬지] '빛' → [빔]

등으로 발음한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그에 따라 바른 표기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태조사의 문항을 보면, '12. 꽃꽂이 40. 베갯잇 24. 돛단배'이다. 꽃꽂이, 베갯잇, 돛단배 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알아야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 (2) 자음동화

자음동화는 받침의 자음과 첫소리 자음이 만날 때, 같은 위치에서 소리를 내려는 경향이다. 음절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



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자음동화(子音同化)라고 한다.<sup>19)</sup>

이 자음동화의 영향이 표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소리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표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음동화를 이해함으로써 발음은 자음동화로 읽고, 표기는 어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7. 곤란'이다. '곤란'은 'ㄴ'이 'ㄹ' 앞에 오거나 뒤에 오면 'ㄴ'이 'ㄹ'로 변한다. 그래서 곤란→[골란]으로 읽되 표기할 때는 '곤란'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 → [실라]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등이다.

실태 분석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문항의 자음동화를 이해하고 있다.

### (3)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 한다. 구개음화는 'ㅣ' 때문에 일어나는 동화현상의 일종이다.

굳+이 → 굳이 → [구디] → [구지]

같+이 → 같이 → [가티] → [가치]

달+히+어 → 달혀 → 다터 → [다쳐] → [다치]<sup>20)</sup>

말할 때에는 구개음화된 것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나, 글로 쓸 때에는 변화기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문항을 보면, '3. 가을걷이'이다. '가을걷이'는 구개음화로 하여 '가을 거지'로 읽는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표기할 때는 변하기 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가을걷이'가 된다.

### (4) 모음동화

모음동화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 음절의 후설모음 'ㅏ, ㅑ, ㅓ, ㅕ'는 뒤 음절에 전설모음 'ㅣ'가 오면, 이에 끌려서 전설모음 'ㅐ, ㅔ, ㅖ, ㅘ'가

19)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30.

20)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31.

로 변하는 것이다.

아비 → [애비]    어미 → [에미]    고기 → [괴기]

죽이다 → [주기다] → [취기다]

이와 같이 변한 발음은 표준어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두 원형대로 밝혀 적고 원형대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모음동화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끝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냄비, 새끼, 멧쟁이’ 등과 같이 한 형태소 안에서 모음동화를 겪은 후 표준어로 아주 굳어진 어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한다면 실태 조사의 문항에서 나온 ‘34. 멧쟁이, 55. 안녕히 가십시오.’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멧쟁이’는 한 형태소 안에서 모음동화를 겪은 후 오늘날의 언어 사용에서 아주 굳어진 표준어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는 ‘ㅣ’모음 순행 동화 현상으로 나타나서 표준 발음이지만, 표기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안녕히 가십시오.’가 된다. 또한 ‘-오’는 종결형일 때 쓰고, ‘-요’는 연결형일 때 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 (5)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음성모음(ㄱ, ㅋ, ㆁ, ㅣ)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ㅏ, ㅑ)은 양성모음끼리,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 모음조화 현상이다. 특히 15세기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에서는 그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다. 예로 들면, 어간과 어미에서 ‘먹어, 보아, 푸르니(푸르니)’ 등이고, 체언과 조사에서는 ‘ㄱㄹ미(강이), ㅂㄹ미(바람이)’ 등 엄격히 지켜졌다. 그러나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 규정이 점점 파괴되어 오늘날에는 현실위주의 발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 일례로 ‘아름답다’에서 ‘아름다와’가 ‘아름다워’로, ‘반갑다’에서 ‘반가와’가 ‘반가워’로, ‘깡충깡충’이 ‘깡충깡충’(‘깡충깡충’은 ‘깡충깡충’의 큰말)으로 바뀌었다. 양성모음은 밝은 소리며, 작은 느낌을 주는데 비해, 음성모음은 어두운 소리이나 양성모음보다 큰 느낌을 주는 말이다. 앞의 예에서, 음성모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태 조사의 문항에서 모음조화에 해당되는 것은 ‘2. 가까워, 54. 아름다워’이다. 오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1988년 1월 1일 개정 이전에 쓰는 표기를 사용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정된 맞춤법, 표준

어 규정도 반드시 습득하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해야겠다.

(6) 음운 축약과 탈락

음운과 음운이 서로 만날 때,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을 축약(縮約)이라 하고, 그 중 한 음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락(脫落)이라 한다.

축약에는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 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어 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축약의 하나이다.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57. 연구토록, 60. 요컨대'이다. '연구토록, 요컨대'는 축약과 탈락 현상이 다 일어나는 단어이다.

연구하도록 → 연구ㅎ도록(탈락) → 연구토록(축약)

요하건대 → 요ㅎ건대(탈락) → 요컨대(축약)

여기서 ㅎ+ㄷ → ㅌ, ㅎ+ㄱ → ㅋ에서 축약이 일어난다.

다음은 탈락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의 문항을 보면, '18. 넉넉지, 21. 다달이, 36. 무말랭이, 48. 생각건대, 63. 익숙지, 69. 적잖은' 등이 있다. '넉넉지'는 '넉넉하지'에서 '하'의 탈락이며, '다달이'는 '달달이'에서 'ㄹ'이 음운이 탈락, '무말랭이'는 '무우말랭이'에서 '우'음절이 탈락, '생각건대'는 '생각하건데'에서 '하'음절이 탈락, '익숙지'는 '익숙하지'에서 '하'의 탈락, '적잖은'은 '적지않은'에서 '지+않'의 결합으로 'ㅣ'모음이 탈락되었다.

이처럼 축약과 탈락 현상이 단어에 나타나므로 이 현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된소리되기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입+고 → [입꼬]      책+도 → [책또]      젓소 → [절소] → [절쏘]

끝소리가 'ㄴ, ㄹ'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어미가 이어지면 그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넘+고 → [넘꼬]      넘+더라 → [넘떠라]

신+고 → [싣꼬]      신+지 → [싣찌] (마라) 21)

이와 같이 소리나는 것을 된소리라 한다. 그런데 소리는 되게 나지만, 표기할 때

21)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33.

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4. 갑자기, 6. 앉습니다, 10. 꼭두각시, 65. 일컫다, 74. 탕습니다, 80. 횃수'이다. 이는 모두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기 때문에 발음은 된소리로 나지만, 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써서는 안되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3) 사잇소리 현상

한글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잘 알아야 한다.

사잇소리 현상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먼저 합성명사라는 것, 그 다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 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다.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는 것이,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용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39. 뱃사공, 40. 배갯잇, 70. 초점, 80. 횃수' 등이다. 앞 단어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합성명사로 되어 있고,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며,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다. 이 때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

'뱃사공'에서 사 → [싸] '횃수'에서 수 → [쑤] 로 변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을 알고 표기해야 바르게 쓸 수 있다. '배갯잇'에 관한 사잇소리 현상은 다음과 같다.

배개+잇(→배갯잇) → [배갯닐]

이와 같은 사잇소리 현상이 우리 국어 어휘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의 이해가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습득해야 바르게 쓸 수 있다.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도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sup>22)</sup>

초점(焦點) → [초점]      횃수(回數, 회수) → [회쑤]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말도 많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잇소리를 넣어 발음해서는 안된다.

방법[方法]      고가[高架]      간단[簡單]

이것은 현실음 위주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사잇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을 붙이는 경우와 붙이지 않는 경우를 알아야 한

22)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pp. 33~ 34.

다. 한글에서 붙이는 경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면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는다. 예로 들면, '뱃사공, 배갯잇' 등이다.

그러나 이 현상에는 뚜렷한 규칙성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래+기름 → 고래기름    기와+집 → 기와집    말+방울 → 말방울  
은+돈 → 은돈<sup>23)</sup>

왜냐하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음 여섯 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이고, 그 외에는 안 붙인다는 원칙으로 설정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 4) 'ㅎ 음 첨가'에 대한 이해

복합어 사이에서 'ㅎ'음이 덧나는 다음의 낱말은 소리나는 대로 다음 첫소리에 췌어 적되, 새로 제정된 학술 용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다. 다음 첫소리에 췌어 적어서 거센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sup>24)</sup>

머리ㅎ카락 > 머리카락    살ㅎ고기 > 살고기    수ㅎ강아지 > 수강아지  
수ㅎ것 > 수컷    수ㅎ당나귀 > 수탕나귀    수ㅎ병아리 > 수평아리  
수ㅎ닭 > 수탉    수ㅎ개 > 수캐    수ㅎ돼지 > 수돼지  
수ㅎ놈 > 수놈    수ㅎ소 > 수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숫'으로 한다.

숫양    숫염소    숫쥐

표준어 규정에서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강아지, 수컷, 수캐, 수탉, 수탕나귀, 수돼지, 수평아리' 등이고, '숫'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숫양, 숫염소, 숫쥐'로 쓰고, 이 이외의 단어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말, 수사슴, 수노루, 수사자, 수개구리, 수매미, 수벼룩, 수독수리, 수오리'로 써야 하고, 종전에 '수캐미, 수커미, 수코양이, 수쿠렁이, 수펄, 수피둘기, 수콤'으로 쓰던 것도 현실 위주의 발음

23) 교육부 (1996), 고등학교 문법, p.33.

24) 이은정(李殷正) (1993), 말·글 바로 쓰기, pp.304~305.

을 중시하여 거센소리로 쓰지 않는다.

‘ㅎ’음 첨가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 31. 머리카락 52. 수평 57. 연구토록 60. 요컨대 ’는 모두 ‘ㅎ’음이 덧나는 소리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가락’이 ‘머리카락’으로, ‘연구ㅎ+도록’이 ‘연구토록’, ‘요ㅎ+건대’가 ‘요컨대’로 발음되고 이들은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88년 이전 표기 규정은 어간과 어미를 합쳐서 쓸 수 없었는데 조항이 바뀌어 지금은 어간과 어미를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변경된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 5) 준말 이해

두 음소가 한 음소로, 또는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 현상은 발음의 편의로 말미암은 것이다.<sup>25)</sup>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원말이 줄어들 때는 준말로 표기하므로 결국은 원말로 적어도 옳고 준말로 적어도 옳은 것이다. 다만 준말로 소리날 때는 준대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준말에 해당되는 실태조사의 문항을 보면, ‘ 18. 넉넉지 29. 만만찮다 47. 생각지 69. 적잖은 ’ 등이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넉넉하지’가 줄어서 ‘넉넉지’가 되고, ‘생각하지’가 줄어서 ‘생각지’가 된다. 이는 ㄱ발침 아래에서 어간 ‘하’가 줄어드는 것이다. ‘만만치+않다’, ‘적지+않다’는 ‘-지’에서 ‘ㅣ’모음이 줄고 다시 ‘-않-’과 결합해서 ‘-잖-’이 된 것이다. 1988년 이전에는 ‘-잖-’으로 쓰던 것이 변경되어 현실 위주의 발음으로 ‘-잖-’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6) ‘이’와 ‘히’의 구별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로만 나느 것

가까이	가벼이	까다로이	기꺼이	반가이	깨끗이
새로이	새삼스러이	안타까이	외로이	즐거이	꽃꽂이
떳떳이	버젓이	반듯이	지긋이	겹겹이	날날이

25) 허웅 (1993),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p.278.

누누이    곱곱이    깊이  
'히'로만 나는 것

가만히    꾸준히    부지런히    능히    마땅히    조용히  
솔직히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히'를 구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ㄱ'받침 아래에서는 '이', '히'의 표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받침 아래에서 '이'로 나는 것

가득이    깊숙이    나직이    넓죽이    소복이    일찍이

'ㄱ'받침 아래에서 '히'로 나는 것

극히    속히    딱히    넉넉히    똑똑히    뻑뻑히  
솔직히    아늑히    엄격히    정확히    툭툭히    등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 8. 곱곱이 51. 솔직히 75. 틱틈이 '는 위 설명과 같다.

### 7) '을'과 '를'의 이해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을'로, 그 외는 '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의 문항을 보면 '17. 내재을' 하나뿐이다. 여기서는 모음 아래임으로 '을'로 표기해야 한다.

## 3. 형태에 관한 것

### 1) 현실 위주의 발음과 단모음화

개정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현실 위주의 발음을 매우 중요시 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기하는 어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깡충깡충 아름다워 적잖은'등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 문항을 보면 ' 2. 가까워 13. 괴팍하다 23. 돌잔

치 29. 만만찮다 45. 사글세 46. 상추쌈 51. 솔직히 52. 수평 54. 아름다워  
61. 우레 66. 있습니다 74. 땀습니다 79. 휴게소' 등은 개정된 한글 맞춤법  
규정이나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른 표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2) 조사 '(으)로서'와 '(으)로써'의 이해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란 뜻을 나타내며,  
교육자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사람의 자식으로서, 인륜을 어길 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학자로서의 임무

'-(으)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다.

톱으로써 나무를 자른다.

병으로써 결근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태 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37. 믿음으로써 77. 공부함으로써'  
'이다. 여기서의 뜻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4. 그 밖의 단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밖의 실태 조사 문항을 보면 '19. 노리개 20. 눈썹 22. 달걀 32. 머리  
말 33. 먹으려고 35. 며칠 41. 복숭아 43. 붉으락푸르락 50. 설거지하다  
56. 애달프다 58. 영숙이에요 62. 으레 67. 잘하던데 68. 장난 70. 재떨이  
71. 주책 73. 칸막이 76. 팔꿈치' 등이다.

위 항목에 대한 지도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19. 노리개'는 '놀다'에서 '놀이'가  
연음되어 '노리'로 여기에다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파생명사로 바뀐 것이다. '20.  
눈썹'은 '눈썹'인지 '눈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눈썹'이라는 것('썹'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함) '22. 달걀'은 '닭의 알'에서 왔지만, 다시 관형격 조사 '이'가 '알' 앞에  
결합되어 '달걀'로 되었다.

다른 예는 '쇠고기'(소고기 허용)에서 '쇠'는 '소'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쇠'가 된 것과 같다. 또 '소고기'도 표준어로 인정하므로 '달걀'도 앞으로는 '달걀' (닭알)도 언중들이 많이 쓴다면 표준어로 허용될 수 있겠다.

'32. 머리말'은 '머릿말'과 혼동을 가져오는데 사잇소리 현상이 안 나타나므로 사 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머리말'로 표기한다.

'35. 며칠'은 '몇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몇 일'에서 '몇' 관형사, '일(日)'은 명사로, 두 개의 단어로 쓸 때는 맞은 표기이나 하나의 단어로 나타날 때는 '며 칠'로 굳어진 표준어임을 알아야겠다.

'41. 복숭아'는 꽃이름과 열매 이름을 구별해야 한다. 꽃이름으로는 '봉선화'요, 먹는 열매 이름으로는 '복숭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봉숭아, 봉 송화, 복숭화 봉선아' 등 오기를 가져 온다. 이것은 꽃이름과 열매 이름을 숙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43. 붉으락푸르락'은 '붉다'와 '푸르다'의 합성 부사이다. '붉다'에는 '리' 받침으로 끝닫기 때문에 매개모음 '으'가 개입되고 '푸르다'에서는 '푸르'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닫기 때문에 매개모음이 개입되지 않는다. '락'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붉으락 푸르락'로 합성부사가 된 것이다.

'50. 설거지하다'는 '설거지'라는 어근에다 접사 '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 이다. 그러나 '설거'를 어근으로 잡다 보면 '설거지하다'라는 오기를 낳게 된다.

'56. 애달프다'는 형용사 '애답다'와 혼동하기 쉽다. '애답다'는 '애달프다'의 고어 에 해당되므로 현대어에서는 '애달프다'이다.

'58. 영숙이예요'('영숙이어요'도 허용)는 이름 '영숙'이라는 고유명사에 '이예요' 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앞에 특별한 기능을 지닌 조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여기에서 오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문법을 모르는 데서 기 인된다. '이예요'라는 조사와 '이어요'라는 조사를 유의어로서 다 사용할 수 있다 한다. '이어요'를 줄여서 '여요'로, '이예요'를 줄여서 '예요'가 된다. 그러므로 '영숙 이예요' 또는 '영숙이어요'가 옳은 표기이다. 이처럼 특별한 기능을 가진 종결형 서 술격 조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어요'와 '이예요'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밑에 쓰이어, 친근한 느낌을 담아 사물을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 타내는 특별한 기능의 종결형 서술격 조사이다.

좋은 고장이어요(고장이예요).    누구의 집이어요(집이예요).

영숙이어요(영숙이에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여요' ('이어요'의 준말)와 '예요' ('이에요'의 준말)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밑에 쓰인다.

그는 착한 아이예요. 몸집은 작아도 국가 대표 축구 선수예요.

아까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sup>26)</sup>

그러므로 '영숙'에서 'ㄱ'받침이 자음이므로 '영숙이어요.' (영숙이에요.)가 된다. '순희'에서는 모음이므로 '순희여요.' (순희예요.)로 해야 옳은 표기다.

'62. 으레'는 품사로는 부사이고, 뜻은 '두말할 것 없이', 또는 '거의 틀림 없이'이다. '으레'에서 '으레'로 굳어진 것이다.

'67. 잘하던데'는 기본형 '잘하다'에서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선어말어미이고, '-는데'는 설명형 어미이므로 '잘하던데'로 써야 한다.

'68. 장난'은 한자어의 '작란'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발음 위주의 표기로 '장난'으로 써야 옳은 표기이다.

'68. 재떨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재를 털다'에서 온 말이 아니고, '재를 떨어뜨리는 것'에서 온 것으로 재떨이가 옳은 표기가 된다.

'71. 주책'은 '주착'과 혼동을 가져 오는데 '주착'은 비표준어가 되므로 '주책'으로 써야 한다.

'73. 칸막이'는 '간막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 위주로 '칸'을 쓰고, '막다'에서 접사 '-이'가 결합하여 원형을 밝혀서 '칸막이'로 표기하는 것이다.

'76. 팔꿈치'는 '팔굄치'나 '팔꿈지'로 혼동을 가져 오는 어휘인데, 발음 위주로 해서 '팔꿈치'가 옳은 표기가 된다.

---

26) 이기문 (1993), 「새국어 사전」, 동아 출판사, p.1651.

## V. 結 論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사용에서 옳은 표기와 그른 표기를 실태 조사에 의해서 살펴 보았으며 또 그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대원칙은 무엇보다도 맞춤법 규정의 총칙 제1항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총칙 제1항에 나온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법(語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우리 나라 국어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표기법에 둘다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어의 어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誤記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의 원칙 즉,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다면 한글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적어지겠으나, 여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표의주의 표기법을 병행하여 써야 한데 어려움이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글은 음운 문자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표의주의를 함께 채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 개의 단어에서 이와 같이 표음주의 표기식과 표의주의 표기식을 쓰는가 하면, 둘다 병행하여 쓰는 것이 한글의 특징이며, 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동을 가져오는 어휘 80문항에 대해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오류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표음주의식 표기인, 두음법칙을 숙지 못한 데에서의 오류, 특히 한자어와 외래어에 해당되는 단어에서 오기를 가져 오고 있다. 원음대로 적으려는 속성에서 빚어지고 있다.

둘째, ‘음운의 변동’에 해당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은 동화 현상 즉, 자음동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되거나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축약과 탈락 등은 표음주의 표기와 표의주의 표기, 또는 표음주의 표기와 표의주의 표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숙지하지 못한 데서 오기를 가져 온

다.

셋째, 그 동안 학계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잇소리 현상, ‘ㅎ’음 첨가, 준말 표기, ‘이’와 ‘히’, ‘을’과 ‘를’의 쓰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기를 가져 온다.

넷째, 특별한 기능을 지닌 조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사용법, 변경된 맞춤법 규정이나 표준어 규정을 숙지 못한 데서 오기를 가져 온다.

다섯째, 그 외 모음조화 파괴나, 현실 위주의 발음, ‘ㅂ’불규칙에서 ‘-오’나 ‘-우’의 변천과정을 숙지 못한 데서 오기를 가져 온다.

여섯째,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를 빚어낸다.

위와 같은 제반 규칙을 이해하는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인 한글을 바르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80문항을 토대로 하여 실태 분석과 지도 방법을 살펴 보았다. 이 이외에도 오기를 가져올 수 있는 어휘를 조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으니, 더 연구의 대상이 될 단어들이다.

우리는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므로, 우리의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마땅해 해야 할 도리이다.

< 參 考 文 獻 >

- 문교부 (1986), 고등학교 국어1,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 (1986), 고등학교 국어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 (1986), 고등학교 국어3,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 (1988), 한글 맞춤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1호 )  
문교부 (1990), 고등학교 문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 (1990), 고등학교 국어(상),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문교부 (1990), 고등학교 국어(하),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3),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6),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교육 연구소.  
교육부 (1997), 고등학교 국어(상),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7), 고등학교 국어(하),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고영근·남기심 (1994),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김민수 (1973), 「國語 文法論」, 一潮閣.  
김민수의 3명(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남광우 (1973), 「改訂 現代 국어 國字의 諸問題」, 一潮閣.  
이기문 (1993), 「국어 오용 사례집」,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이기문 (1994),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이승구 (1990),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백과 : 正書法 資料」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이은정 (1988), 「개정한 한글 맞춤법·표준어 해설」, 대제각.  
이은정 (1993), 「말·글 바로쓰기」, 大提閣.  
이희승 안병희 (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 신구문화사.  
이희승 (1994),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이희승 (1977),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정현종 (1990), “국어표기 오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최경하 (1991),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허 응 (1984), 「국어학」, 샘문화사.

허 응 (1993),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ABSTRACT>

A STUDY OF THE USE OF HANGUL ORTHOGRAPHY IN PRACTICE AND  
THE METHOD USED FOR TEACHING THE RULES

Boo Yong Ky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 Gon

People express their thought and feelings to others through language thereby leading to mutual understanding.

The Hangul language with the Korean nation as its background is therefore a valuable asset which can unify a race and contribute to a noble culture.

This study was performed by analysing the use of Hangul orthography in 80 example phrases. These phrases were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correct use of language and the teaching methods used.

It is concluded that improved grammatical education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use of the language. This will require a step by step approach throughout primary school education.

As a distinct race characterised by the use of our own language of Hangul, understanding and using Hangul correctly are our duty as Korean Peopl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 附錄 1

### 맞춤법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지를 부탁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설문은 <한글 맞춤법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1988년 1월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에 맞춤법 통일안이 개정되었으나 국민들이 개정된 맞춤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틀리기 쉬운 맞춤법 사용에 관하여 조사코저 하오니, 연구에 협조하는 뜻에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응답은 국어 맞춤법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만 활용할 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부용균 드림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① 10대 ( )    ② 20대 ( )      ③ 30대 ( )  
          ④ 40대 ( )    ⑤ 50대 ( )      ⑥ 60대 이상 ( )
3. 직업: ① 중학생 ( )    ② 고등학생 ( )    ③ 대학생 ( )  
          ④ 공무원 ( )    ⑤ 회사원 ( )      ⑥ 기타 ( )



4. 학력: ① 고재( )      ② 고졸( )      ③ 대재( )  
           ④ 대졸이상( )

\*다음 단어 가운데서 옳다고 생각되는 말(언어)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① 가우내( )      ② 가으내( )      ③ 가으네( )      ④ 가올내( )
2. ① 가까와( )      ② 가까워( )      ③ 까가와( )      ④ 까가워( )
3. ① 가올거디( )    ② 가올거지( )    ③ 가올걸이( )    ④ 가올걸지( )
4. ① 갑자기( )      ② 갑작어( )      ③ 갑짜기( )      ④ 갑짝이( )
5. ① 감수물( )      ② 감스물( )      ③ 갓수물( )      ④ 갓스물( )
6. ① 갔읍니다( )    ② 갔습니다( )    ③ 갔읍니다( )    ④ 갔씀니다( )
7. ① 곤난( )          ② 곤란( )          ③ 골난( )          ④ 골란( )
8. ① 공고미( )      ② 곰곰이( )      ③ 공곰이( )      ④ 곰곰히( )
9. ① 깨끗이( )      ② 깨끗히( )      ③ 깨끝이( )      ④ 깨끝히( )
10. ① 꼭두각시( )    ② 꼭두각씨( )    ③ 꼭뚜각시( )    ④ 꼭뚜각씨( )
11. ① 격다( )          ② 겪다( )          ③ 꺾다( )          ④ 꺾다( )
12. ① 꽃꼬지( )      ② 꽃꼴이( )      ③ 꽃꽃이( )      ④ 꽃꽃이( )
13. ① 괴팍하다( )    ② 괴팍하다( )    ③ 쾌팍하다( )    ④ 쾌팍하다( )
14. ① 나두리( )      ② 나드리( )      ③ 나들이( )      ④ 나들리( )
15. ① 나무꾼( )      ② 나무꾼( )      ③ 나뭇꾼( )      ④ 나뭇꾼( )
16. ① 나무잎( )      ② 나뭇잎( )      ③ 나뭇잎( )      ④ 나뭇잎( )
17. ① 내제물( )      ② 내제울( )      ③ 내제울( )      ④ 내제를( )
18. ① 녀녀지( )      ② 녀녀치( )      ③ 녀녀충지( )    ④ 녀녀하지( )
19. ① 노리개( )      ② 놀리개( )      ③ 놀이개( )      ④ 놀이개( )
20. ① 눈섭( )          ② 눈썹( )          ③ 눈썹( )          ④ 눈썹( )
21. ① 다달이( )      ② 달다리( )      ③ 달달리( )      ④ 달달이( )
22. ① 달갈( )          ② 닭갈( )          ③ 닭알( )          ④ 닭알( )
23. ① 돌잔치( )      ② 돌잔치( )      ③ 똥잔치( )      ④ 똥잔치( )
24. ① 돌단배( )      ② 돛단배( )      ③ 돛단배( )      ④ 돛단배( )
25. ① 돌자리( )      ② 돛자리( )      ③ 돛자리( )      ④ 돛자리( )
26. ① 뒤꿈치( )      ② 뒷꿈치( )      ③ 뒷꿈지( )      ④ 뒷꿈치( )

27. ① 뚜려시 ( )    ② 뚜렸시 ( )    ③ 뚜럿이 ( )    ④ 뚜럿히 ( )
28. ① 리사무서 ( )    ② 리사무소 ( )    ③ 이사무서 ( )    ④ 이사무소 ( )
29. ① 만만찮다 ( )    ② 만만찮다 ( )    ③ 만만ㅎ찮다 ( )    ④ 만닿찮다 ( )
30. ① 마춤웃 ( )    ② 맞춤웃 ( )    ③ 맞춤웃 ( )    ④ 맞춤웃 ( )
31. ① 머리가락 ( )    ② 머리카락 ( )    ③ 머릿가락 ( )    ④ 머릿카락 ( )
32. ① 머리말 ( )    ② 머린말 ( )    ③ 머림말 ( )    ④ 머릿말 ( )
33. ① 먹으러고 ( )    ② 먹으려고 ( )    ③ 먹올러고 ( )    ④ 먹올려고 ( )
34. ① 먼장이 ( )    ② 먼쟁이 ( )    ③ 멋장이 ( )    ④ 멋쟁이 ( )
35. ① 며칠 ( )    ② 몇칠 ( )    ③ 몇일 ( )    ④ 몇칠 ( )
36. ① 무말랭이 ( )    ② 무수말랭이 ( )    ③ 무우말랭이 ( )  
④ 무우말랭이 ( )
37. ① 믿음으로써 ( )    ② 믿음으로써 ( )    ③ 믿음으로서 ( )  
④ 믿음으로써 ( )
38. ① 벼꽃 ( )    ② 벳꽃 ( )    ③ 벳꽃 ( )    ④ 벳꽃 ( )
39. ① 배사공 ( )    ② 뱃사공 ( )    ③ 배사공 ( )    ④ 뱃사공 ( )
40. ① 벼개잇 ( )    ② 벳개잇 ( )    ③ 벳개잇 ( )    ④ 벳개잇 ( )
41. ① 복숭아 ( )    ② 복숭화 ( )    ③ 봉숭아 ( )    ④ 봉숭화 ( )
42. ① 부딪치다 ( )    ② 부딪치다 ( )    ③ 부딪히다 ( )  
④ 부딪히다 ( )
43. ① 불그락푸르락 ( )    ② 불으락 푸르락 ( )  
③ 붉그락 푸르락 ( )    ④ 붉으락푸르락 ( )
44. ① 부치다 ( )    ② 분치다 ( )    ③ 붓치다 ( )    ④ 불치다 ( )
45. ① 사글세 ( )    ② 사궐세 ( )    ③ 삭월세 ( )    ④ 삭을세 ( )
46. ① 상추삼 ( )    ② 상추쌈 ( )    ③ 상춧삼 ( )    ④ 상춧쌈 ( )
47. ① 생각지 ( )    ② 생각치 ( )    ③ 생각ㅎ지 ( )    ④ 생각하지 ( )
48. ① 생각건대 ( )    ② 생각건대 ( )    ③ 생각ㅎ건대 ( )    ④ 생각컨대 ( )
49. ① 서슴지 ( )    ② 서슴치 ( )    ③ 서슴ㅎ지 ( )    ④ 서슴하지 ( )
50. ① 설거지하다 ( )    ② 설거질하다 ( )    ③ 설거짓하다 ( )  
④ 설겅이하다 ( )
51. ① 술지기 ( )    ② 술직이 ( )    ③ 술직히 ( )    ④ 술찌기 ( )

52. ① 수평 ( )      ② 수횡 ( )      ③ 수뎡 ( )      ④ 수횡 ( )
53. ① 아무튼 ( )    ② 아뭇든 ( )    ③ 아뭇튼 ( )    ④ 아뭇든 ( )
54. ① 아름다와 ( )    ② 아름다워 ( )    ③ 아름답아 ( )  
④ 아름답어 ( )
55. ① 안녕이 가십시오 ( )      ② 안녕이 가십시오 ( )  
③ 안녕히 가십시오 ( )      ④ 안녕히 가십시오 ( )
56. ① 애달푸다 ( )      ② 애달프다 ( )      ③ 애답우다 ( )  
④ 애답우다 ( )
57. ① 연구도록 ( )      ② 연구토록 ( )      ③ 연구ㅎ도록 ( )  
④ 연구하도록 ( )
58. ① 영숙이예요 ( )    ② 영숙이에요 ( )    ③ 영숙이예요 ( )  
④ 영숙이에요 ( )
59. ① 오뉴월 ( )      ② 오늑월 ( )      ③ 오륙월 ( )      ④ 오육월 ( )
60. ① 요컨대 ( )      ② 요컨데 ( )      ③ 요ㅎ건대 ( )      ④ 요하건대 ( )
61. ① 우래 ( )      ② 우레 ( )      ③ 우괘 ( )      ④ 우뢰 ( )
62. ① 으래 ( )      ② 으래 ( )      ③ 으래 ( )      ④ 으래 ( )
63. ① 익숙지 ( )      ② 익숙치 ( )      ③ 익숙ㅎ지 ( )      ④ 익숙치 ( )
64. ① 일지기 ( )      ② 일찌기 ( )      ③ 일찍기 ( )      ④ 일찍이 ( )
65. ① 일컫다 ( )      ② 일컫다 ( )      ③ 일궈다 ( )      ④ 일궈다 ( )
66. ① 있습니다 ( )    ② 있습니다 ( )    ③ 있습니다 ( )    ④ 있습니다 ( )
67. ① 잘하던대 ( )    ② 잘하던데 ( )    ③ 잘하든대 ( )    ④ 잘하든데 ( )
68. ① 작난 ( )      ② 작란 ( )      ③ 장난 ( )      ④ 장관 ( )
69. ① 적잔은 ( )      ② 적잖은 ( )      ③ 적잔은 ( )      ④ 적잖은 ( )
70. ① 재떨이 ( )      ② 꺾떨이 ( )      ③ 재떨이 ( )      ④ 꺾떨이 ( )
71. ① 주착 ( )      ② 주책 ( )      ③ 주책 ( )      ④ 좃책 ( )
72. ① 초점 ( )      ② 초뺨 ( )      ③ 좃점 ( )      ④ 좃뺨 ( )
73. ① 간막이 ( )      ② 칸마기 ( )      ③ 칸막기 ( )      ④ 칸막이 ( )
74. ① 땃습니다 ( )    ② 땃읍니다 ( )    ③ 땃습니다 ( )    ④ 땃읍니다 ( )
75. ① 듬툼이 ( )      ② 듬툼히 ( )      ③ 톼툼이 ( )      ④ 톼툼히 ( )
76. ① 팔꿈찌 ( )      ② 팔꿈치 ( )      ③ 팔꿈지 ( )      ④ 팔꿈치 ( )

77. ① 공부하므로서 ( )                      ② 공부하므로써 ( )  
      ③ 공부함으로서 ( )                      ④ 공부함으로써 ( )
78. ① 하여튼 ( )    ② 하엿든 ( )    ③ 하영든 ( )    ④ 하영튼 ( )
79. ① 휴개소 ( )    ② 휴개소 ( )    ③ 휴계소 ( )    ④ 휴계소 ( )
80. ① 회수 ( )    ② 횃수 ( )    ③ 회쭈 ( )    ④ 횃쭈 ( )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9) 


(10) (아기를) 


  
 (일정한 곳에) 


(11) 


(12) 


(13) 


(14) 


(15) 


<input type="checkbox"/> 수사슴	<input type="checkbox"/> 수사자	<input type="checkbox"/> 수캐	<input type="checkbox"/> 수돼지
<input type="checkbox"/> 숫사슴	<input type="checkbox"/> 숫사자	<input type="checkbox"/> 수개	<input type="checkbox"/> 수돼지
		<input type="checkbox"/> 숫개	<input type="checkbox"/> 숫돼지

(11)  숫양     숫염소     숫쥐  
 수양     수염소     수쥐

(16)  산뜻하다     해쓱하다  
 산듯하다     해숙하다

(17)  사흘날     설부르다     설달     술가락  
 사흘날     설부르다     설달     술가락

(18)  -을거나     -을게     -을까?  
 -을꺼나     -을께     -을까?

(19)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20)  하고저     생각고저  
 하고자     생각코저  
             생각고자

## 2. 잘못 적기 쉬운 한자어

(1)  고통(苦痛)스럽다     개방적(開放的)이다  
 고통적(苦痛的)이다     개방(開放)스럽다  
 인상적(印象的)이다  
 인상(印象)스럽다

- (2) 句節- { 구절, 귀절 }    對句- { 대구, 대귀, 대귀 }    語句- { 어구, 어귀 }    物價- { 물가, 물가 }

(3) 한자어의 사이시옷 현상으로 사이시옷을 붙이는 6개의 단어

- 庫間- { 곳간, 고간 }    糞房- { 셋방, 세방 }    數字- { 숫자, 수자 }  
 車間- { 차간, 차간 }    退間- { 뒷간, 퇴간 }    回收- { 회수, 회수 }

※ 그 외 합성된 한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사이시옷을 안 붙인다.

(4) 합성된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안 붙이는 단어.

- 國語科- { 국어과, 국엇과 }    對句- { 대구, 대귀 }    詩句- { 시구, 시구 }  
 文科- { 문과, 문과 }    理科- { 이과, 잇과 }    齒科- { 치과, 치과 }

(5) 다음법칙

- 樂園- { 낙원, 락원 }    理由- { 이유, 리유 }    女子- { 여자, 녀자 }    歷史- { 역사, 력사 }  
 年月日- { 연월일, 년월일 }    年老- { 연로, 연노, 년노, 년로 }    良心- { 양심, 량심 }  
 理髮所- { 이발소, 리발소 }    流行- { 유행, 류행 }

- (6) 羅列- { 나열, 나렬 }    內在律- { 내재율, 내재률 }    當籤率- { 당첨률, 당첨율 }  
 命中率- { 명중률, 명중율 }    分裂- { 분열, 분렬 }    比率- { 비율, 비률 }



先烈-	<input type="checkbox"/> 선열 <input type="checkbox"/> 선렬	旋律-	<input type="checkbox"/> 선율 <input type="checkbox"/> 선률	失敗率-	<input type="checkbox"/> 실패율 <input type="checkbox"/> 실패률
的中率-	<input type="checkbox"/> 적중률 <input type="checkbox"/> 적중율	出席率-	<input type="checkbox"/> 출석률 <input type="checkbox"/> 출석율	合格率-	<input type="checkbox"/> 합격률 <input type="checkbox"/> 합격율
確率-	<input type="checkbox"/> 확률 <input type="checkbox"/> 확율	外形率-	<input type="checkbox"/> 외형률 <input type="checkbox"/> 외형율	韻律-	<input type="checkbox"/> 운율 <input type="checkbox"/> 운률

(7) '欄'의 음(音)은 '란'으로 통일

家庭欄-	<input type="checkbox"/> 가정란 <input type="checkbox"/> 가정난	空欄-	<input type="checkbox"/> 공란 <input type="checkbox"/> 공난	備考欄-	<input type="checkbox"/> 비고란 <input type="checkbox"/> 비고난
出席欄-	<input type="checkbox"/> 출석란 <input type="checkbox"/> 출석난	意見欄-	<input type="checkbox"/> 의견란 <input type="checkbox"/> 의견난		

(8) 來來月-	<input type="checkbox"/> 내내월 <input type="checkbox"/> 내래월	勞動法-	<input type="checkbox"/> 노동법 <input type="checkbox"/> 로동법	非論理的-	<input type="checkbox"/> 비논리적 <input type="checkbox"/> 비론리적
上老人-	<input type="checkbox"/> 상노인 <input type="checkbox"/> 상로인	重勞動-	<input type="checkbox"/> 중노동 <input type="checkbox"/> 중로동		



(9) 본음(本音)과 속음(俗音)

木瓜-	<input type="checkbox"/> 모과 <input type="checkbox"/> 목과	承諾-	<input type="checkbox"/> 승낙 <input type="checkbox"/> 승락	畵引-	<input type="checkbox"/> 할인 <input type="checkbox"/> 활인
許諾-	<input type="checkbox"/> 허락 <input type="checkbox"/> 허낙	役割-	<input type="checkbox"/> 역할 <input type="checkbox"/> 역활		

(10) 달력

九十月-	<input type="checkbox"/> 구시월 <input type="checkbox"/> 구십월	初八日-	<input type="checkbox"/> 초파일 <input type="checkbox"/> 초팔일	十王殿-	<input type="checkbox"/> 시왕전 <input type="checkbox"/> 십왕전
------	--------------------------------------------------------------	------	--------------------------------------------------------------	------	--------------------------------------------------------------